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 태권도 경기 변천과정

A Transition of JeJu Taekwondo Competition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체 육 학 과

송 문 철

2015년 2월

국문요약

제주 태권도 경기 변천과정

송 문 철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이 연구는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태권도 경기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제주태권도의 문화정체성 확립 및 사(史)적 체계를 정립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태권도는 각 지역이 갖는 문화적 특수성과 융화되어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기도하며, 독자적인 문화가 형성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특정 지역인 제주를 중심으로 태권도 경기 변천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제주 태권도 경기의 변천과정에 관련된 문헌 및 신문기사 등의 문헌자료를 참고하였다. 연구의 질적 향상과 문헌의 사실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초창기 태권도를 수련하고 보급하였던 원로, 임원 그리고 선수들의 구술 자료를 모아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되도록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지역의 태권도 도입은 1954년 6월 문대식(文大植·본명 문봉준)에 의해 사사로 이루어졌다. 초창기 태권도 보급은 1955년 6월부터 창무관, 강덕원, 청도관, 오도관, 지도관 그리고 송무관 등의 주요 6개 관(館)에 의해 보급되어 졌다. 창무관이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제주태권도 보급에 많은 영향을 가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제주도태권도협회는 1957년 7월 17일 결성되었다. 1963년 2월 10일 제주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로의 승인을 시작으로 역대 3번의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으며, 재일동포의 성금으로 제주도태권도회관건립, 제15회 세계선수권대회 유치, 제주평화기전국대회 유치 및 상시개최 그리고 ‘제주태권도 50년사’ 편찬 등의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셋째, 제주선수단은 1982년 첫 국가대표 장승화를 시작으로 다수의 국가대표선수를 배출하였다. 전국체육대회에서도 두 번의 종합 준우승과 한 번의 종합 우승을 기록하며 그 경기력을 입증 시켰다.

초창기 지도자들의 희생과 선배들의 귀감, 전국 창무관 수련회 및 심판강습회 제주유치,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한 강화훈련과 유망주 집중육성 그리고 제주대학교 태권도부와 제주도청 태권도팀 창단 등의 노력이 뒷받침된 결실이라 하겠다. 이는 결과적으로 도내 태권도 저변확대에 영향을 미쳤고 나아가 제주태권도가 제주체육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넷째, 제주선수단육성은 60년대 초반 시작되었다. 제주시지역은 오현고등학교에서 남녕고등학교와 영주고등학교로 이어졌고 서귀포지역은 남주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계육성의 시초로 1972년 제주사범대학교에 태권도부가 창단되었다. 중학교 태권도부는 2000년대를 전후로 제주에서 열린 제32회 소년체육대회대비를 목적으로 잇달아 창단하여 육성되고 있다.

다섯째, 제주태권도는 지역적 특수성을 극복하고 비약적 발전을 해왔다. 하지만 표상적인 실적에만 치중하는 경향으로 인해 제주도태권도협회의 내실 약화와 선수층 고갈 그리고 선수육성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제주도태권도협회는 경기체육과 생활체육 등의 각 분야를 세분화 및

체계화하여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잠재적 인재등용을 통한 조직의 전문화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또한 태권도선수 출신 중등교사들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어 대체 할 수 있는 지도자 수급이 제고된다.

마지막으로 태권도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초등학교 태권도부의 창단을 통한 선수자본의 확보 및 초·중·고·대학교 그리고 실업팀으로 이어지는 연계육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문제	3
3. 연구의 방법	4
4. 연구의 절차	6
5. 연구의 제한점	8
6. 시기 구분	9
II. 이론적 배경	11
1. 현대 태권도 계보의 형성	11
2. 태권도의 경기화과정	14
3. 제주체육의 발전과정	17
III. 연구결과 및 고찰	21
1. 제주 지역에 태권도가 도입된 시기와 관(館)에 따른 보급과정	21
1) 창무관	26
2) 강덕원	26
3) 청도관	26
4) 오도관	26
5) 지도관	26
6) 송무관	26

2. 제주태권도협회의 창설과 변천과정	38
1) 태동기(1967년~1975년)	38
2) 성장기(1976년~1992년)	44
3) 발전기(1993년~2002년)	48
4) 전환기(2003년~2004년)	53
5) 도약기(2005년~2014년)	55
3. 제주태권도 경기대회 출전사	60
1) 국제경기대회	60
2) 전국체육대회	63
4. 제주태권도 주요 선수단의 창단과 변천과정	83
1) 중등부	83
2) 고등부	86
3) 제주대학교 태권도부	91
4) 제주특별자치도청 태권도팀	92
 IV. 결론 및 제언	94
1. 결론	94
2. 제언	97
 참고문헌	98
 ABSTRACT	101

표 목차

표1. 국제경기대회	61
표2. 전국체육대회 입상자 명단	64
표3. 소년체육대회 입상자 명단	72

그림 목차

그림1. 연구 모형 설계	7
그림2. 제주일보 광고란(1955.7.5)	42
그림3. 제주도 태권도 입관 대장(창무관)	5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태권도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자 민족의 얼을 담고 있는 전통무예로서, 현재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부터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까지 5회 연속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며 세계인의 스포츠로 자리 잡게 되었다. 현재 세계태권도연맹(WTF)에 가입한 국가는 205개 회원국으로, 아직 세계태권도연맹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국의 수련인구를 감안하면 약 8천만 명으로 추산된다(세계태권도연맹, 2013).

일본의 가라테와 중국의 우슈 등 유사한 무도 스포츠들이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룩하지 못한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문화 아이콘으로 당당히 자리매김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서 검증된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끊임 없이 도전받는 것은 지난 50년간의 비약적 발전을 생각할 때 너무나 당연한 귀결인 듯하다. 이러한 도전을 뒤로하고 여전히 세계인의 스포츠로 각광받기 위해서는 그 위상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배경과 변천에 대한 전개과정이 객관적 서술로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이러한 변천과정에 대한 정체성 확립의 첫걸음은 그것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고 하겠다(안용규, 2006).

일반적으로 정확한 역사과정의 인식 및 연구가 수반되지 않으면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현재의 어떠한 현상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을 것이며, 미래지표 선정 및 지속적 발전에 있어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것이다(장권, 2010).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의 모든 태권도 역사연구는 지역이나 특정 대상에 초점을 두지 않은 통사적 연구들이다. 그러나 각 지역이 갖는 특수성과 또 지역을 중심으로 조명할 경우 가능한 구체성 등을 고려할 때 지역적 연구의 의미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역 자체의 역사를 정리한다는 것 그 자체 역시 필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지역 태권도의 발전에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것이다(역사학회, 2000;윤종욱, 2008).

제주태권도는 광복이후 1955년부터 태권도가 유입된 이후 외적으로는 크게 발전되고 있으나 내적으로는 태권도인들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제주 태권도 역사가 정립 되어있지 않으며,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초기 지도자들이 점차 고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제주도태권도의 역사를 바르게 정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안영익, 2002).

제주지역은 수도서울과 가장 먼 섬의 도시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태권도가 다소 늦게 보급 되었다. 그리고 비교적 열악한 환경과 자본 그리고 얇은 선수층 등 총체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가대표선수 배출 및 전국체전 중위권 도약 이라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하지만 이러한 급속한 성장에 비해 제주태권도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미흡한 실정으로 제주태권도의 위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역사적 배경과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연구자가 태어나 경험해 왔던 제주지역의 태권도가 유입, 변천되어온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여, 과거를 되짚어보고, 현재를 분석하며, 미래의 경향까지 조망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문제

이 연구는 제주지역의 태권도 경기 변천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현대 태권도가 제주 지역에 처음 도입된 시기와 이후 각 관(館)에 따른 보급과정.

둘째, 제주태권도협회의 창설과정과 창설이후 현재까지의 발자취 탐색.

셋째, 제44회 전국체육대회에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제주 지역 경기태권도가 제주스포츠의 중심으로서 한국태권도의 주축이 될 수 있었던 원인 고찰.

넷째, 제주 지역 경기태권도 발전의 초석이 된 주요 태권도선수단의 창단과 변천과정 고찰.

다섯째, 위의 네 가지 분석 내용을 통해 제주 지역 경기태권도에 대한 연구자의 생각과 견해를 제시하여 발전에 기틀을 만들고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제시.

3.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제주에 태권도가 유입된 1955년 이후 제주 태권도의 역사적 특성과 사회적 흐름을 함께 분석하기 위하여 역사·사회사적 방법을 분석의 틀로 채택하였다. 사회사에서의 사회는 본질적으로 역사적인 것이며, 역사적 과정이 사회학적인 행동과 구조의 연결자임을 강조한다(김승일·심금순, 1997).

체육사적 문헌연구에 의한 분석을 통한 사회사적 측면의 연구과정과 방법에 따라 제주 태권도 경기의 변천과정에 관련된 문헌 및 서적 뿐 아니라, 신문 기사, 태권도 서적과 연구물 자료, 국기원 및 제주태권도협회에 보관되어온 대회 기록들 그리고 제주태권도협회에서 발간한 ‘제주태권도50년사’등의 문헌자료를 참고하였다.

이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제주 태권도와 관련된 태권도 원로, 임원, 선수들과의 인터뷰를 확보한 구술사(口述史) 자료를 활용했으며, 직접 인터뷰를 통해 얻어진 구술사(口述史) 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되도록 하였다.

인터뷰의 실시는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비구조화된 방법으로 전개했으며, 인터뷰한 내용은 보이스 레코더와 가정용 캠코더, 일반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기록한 후 컴퓨터로 전사(transcription)하여 각 상황별 해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윤택림(2006)이 제시한 연구방법에 따라서 인터뷰한 연구 참여자들이 그 시대의 직접 당사자이거나 밀접한 관계인으로 상황별 내용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면담자의 증언과 당시의 문헌 등을 통해 다각도 분석법(triangulation)을 실시하여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실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후 객관화된 자료를 수정, 보완하여 각 상황별로 해석하였으며, 주요요인에 따른 문장의 기술은 최대한 증언된 내용을 토대로 사실적으로 서술하였다.

문헌연구와 인터뷰에 의한 구술사(口述史) 자료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역

사·사회사적 연구방법(socio-historcal approach)으로 해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역사·사회사적 연구방법을 택한 이유는 제주 태권도사를 통해 제주 태권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봄에 있어 역사적 사실을 사건의 순서대로 나열하고 해석할 때 오는 맹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이다(Hargreaver, 1986).

사회사적 연구방법은 기존의 역사적 설명과는 달리 제주 태권도경기의 변천에 따른 변화과정에 영향을 끼친 시대의 흐름과 역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설명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이고 이를 통해 체육사적 의의를 효율적으로 도출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제주 태권도 변천과정에 대한 문헌연구의 객관화를 통해 제주 태권도의 지나간 과거를 되 짚어보고 앞으로 우리가 이끌어 가야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한다.

4. 연구 절차

제주 태권도를 역사적 사실 뿐만 아니라 주제별로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절차를 설정하여 검토하였다. 연구절차는 선행연구인 장권(2010)의 연구방법 및 절차를 본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흐름에 맞추어 수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절차를 설정 하였다. 단, 제주평화기 및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는 대회의 주관단체에 의해 논의 하였다.

첫째, 제주 태권도에 관련된 각종 문헌과, 정기 간행물, 신문기사, 대회기록, 일간지 등을 통하여, 현재까지 이어오는 제주 태권도 경기사의 흐름을 파악.

둘째, 제주태권도의 변천과정을 전개하기위해서 태권도 경기와 관련된 원로 태권도인들과, 경기에 참여한 선수, 임원과의 직접적인 면담하여 경기에 대한 변천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

셋째, 위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각 범주별로 주제의 전개 실시.

넷째, 제주 태권도 변천의 흐름과 요인을 분석하여 결론을 제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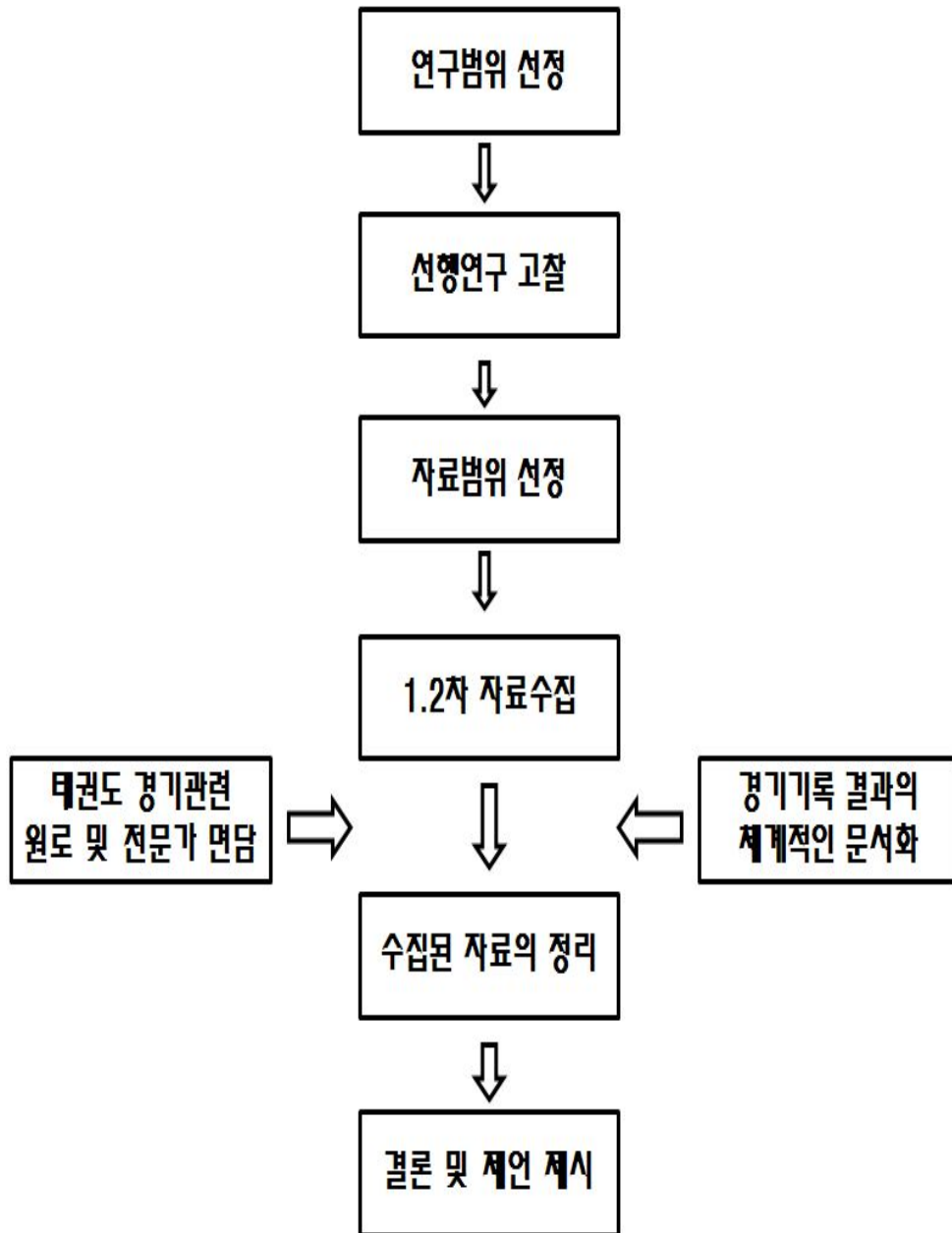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설계(장권, 2010 재인용)

5.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이 연구는 태권도가 제주도로 유입된 1955년부터 현재인 2014년까지 제주 경기 태권도를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기 때문에 범위의 한계가 있다.

둘째, 1차적 문헌자료와 공식적인 기록이 미흡할 시에는 연구논문, 태권도관련서적 등의 2차 자료와, 제주태권도협회의 도움, 생존해 있는 몇몇 원로 태권도인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보완하였다.

셋째, 태권도인들과의 대담을 통하여 얻은 구술 자료의 특성상 객관적으로 증명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연구목적에 맞게 연구자 본인이 문서화, 체계화하여 사용하였다.

6. 시기 구분

제주태권도협회의 변천과정 부분에서 사용된 시기구분은 절대적 시간차원에 서의 시대구분뿐만 아니라 공간적, 환경적 요인들로 이루어진 임의의 사건들을 근거한 시기구분이라 하겠다.

역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시대구분이다. 시대구분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필요한 가설 혹은 사상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단한 과거의 시간적 흐름을 구체지어 생각하지 않으면 역사의 이해는 명확해질 수 없다. 그런 이유에서 시대구분은 역사 연구의 필수적인 것이 된다(나채만, 2013).

연구자는 특정지역 이라는 공간적 특수성과 훈련 자본 및 인프라 그리고 인적 자원이라는 환경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이 연구와 관련성이 있는 선행연구의 시대 구분 방법들을 우선적으로 검토 하였다.

손천택·조준호(2009)는 광복 후 인천레슬링의 발전사를 살펴보고 사(史)적 체계정립을 위해 시대를 세 시기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광복 후부터 장창선이 금메달을 획득하는 시기를 인천레슬링 발전사의 정점으로 보고 역사적 검토를 하였다. 이 시기를 중심으로 광복 후 인천레슬링 발전사를 태동기, 성장기, 도약기로 시대를 구분하였다. 먼저 태동기는 광복 후 경기단체가 설립되고, 김석영의 ‘인천레슬링구락부’가 설립된 시점으로 분류하였으며, 다음으로 성장기는 태동기 이후 인천의 학교 운동부에 레슬링부가 창단되고, 임배영의 ‘인천체육관’과 ‘사동체육관’을 중심으로 레슬링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점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약기는 성장기 이후 인천에서의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당대최고의 시설인프라가 구축되어 이를 바탕으로 장창선이라는 세계대회 금메달리스트가 배출되고, 김문기가 동메달을 획득하는 1970년까지의 시점으로 분류하였다.

안영익(2002)은 1955년부터 2000년까지 제주태권도의 변천과정을 크게 문헌

과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또한 선배 태권도인들과의 대담을 참고하여 연대기적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전체적으로 보급기부터 도약기까지 5단계로 구분하였다. 제 1기는 호신을 위한 무술로써 계보에 의하여 보급되던 보급기, 제 2기는 제주태권도협회가 구성된 전환기, 제 3기는 제주태권도회관이 건립된 성장기, 제 4기는 국가대표선수가 탄생된 발전기 그리고 제 5기는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준우승을 차지한 도약기로 분류하여 보고 있다.

이 연구에서 선정한 각 시기적 구분은 제주태권도협회를 중심으로, 선행연구인 손천택·조준호(2009)와 안영익(2002) 등의 연구에서 제시한 시대적 구분을 토대로 체계성 확립을 위해 태동기, 성장기, 발전기, 전환기, 그리고 도약기까지 변천형태에 따라 다섯 가지 시기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첫째, 제주태권도협회가 창설되면서 연무형태의 태권도가 경기형태의 태권도로 처음 발돋움 했던 1957년부터 1975년까지의 시기를 태동기로 보았다.

둘째, 제주태권도가 경기화 이후 전국에 두각을 나타내며 전국체전에서의 상위 입상과 첫 국가대표 배출까지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1976년부터 1992년까지의 시기를 성장기로 보았다.

셋째, 국가대표 다수 배출 및 국제대회 입상, 협회의 국제 교류사업에 이은 세계선수권대회 유치까지 성공하며 제주태권도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1993년부터 2002년까지의 시기를 발전기로 보았다.

넷째, 전국체전 성적 부진과 협회 이사들의 갈등으로 회장과 집행부임원들까지 사퇴하며 제주시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되었다가 새 집행부의 구성을 통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2003년부터 2004년까지의 시기를 전환기로 보았다.

다섯째, 협회의 정상화가 급속하게 추진되며 도내 중학교팀의 선진 및 그동안 침체되었던 국가대표의 배출 그리고 제주평화기 전국태권도대회의 상설유치 및 제9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사상 첫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발전사의 정점을 찍을 수 있었던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시기를 도약기로 보았다.

II. 이론적 배경

1. 현대 태권도 및 계보의 형성

태권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맨손무예인 수박, 권법, 태권 등의 근대화된 형태이다(박철희, 1959, 황기, 1970, 최홍희, 1972, 노희덕, 1979, 류호평, 1981, 정찬모, 1982). 이는 학계나 일반에서도 반세기 가까이 정설로 받아들여졌으나 80년대 후반 양진방(1986)에 이어 김용옥(1990) 등 소수 학자들로 부터 태권도는 가라테를 배웠던 일본 유학과 출신들이 광복을 기점삼아 한국에 귀국해 공수도, 당수도의 명칭으로 도장을 설립한 후 관 형태로 보급했다는 가라테 유입설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과거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 아래 고유무예가 금지 되며 우리의 무예는 수련의 형태로서 또는 가라테를 배웠던 중국과 만주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 권법과 가라테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은 사실이다(양현석, 2006). 하지만 김용옥(1990)의 기원설을 따지는 학문 방법론은 무의미하다. 모든 창조는 창조적 변형(Creative Transformation)일 뿐이며, 오늘날의 태권도도 지역적 특수성과 개인적 다양성에 의해 영향을 받아 도착된 무도이자 스포츠이기 때문이다(이창후, 1999, 최영렬·전정우, 1997). 태권도사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졌지만 사관이라는 것은 결국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는 개인들의 시각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시각들은 또한 논자의 개인적 입장 즉, 각 논자들이 처한 사회적 위치나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 질 수도 있는 것이다(정근표, 2002).

광복 이후의 태권도는 맨손무예체계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한다. 또한 새로운 태권도의 출발점은 일본이 식민지 국민에게 무술금지령을 내렸던 시기인 광복 전후로 태권도 원로들이 체계를 잡고 협회를 구성한 시기를 기술적 태권

도의 발생으로 잡는 태권도의 요람기라 할 수 있다(양현석, 2006). 아쉽게도 태권도 역사가 정립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대사 발효시기를 명확히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현대태권도사의 시작은 광복직후 서울에서 청도관, 철도국 무덕관, 조선연무관(지도관), YMCA 창무관, 개성의 송무관 등 이른바 5대 기간도장(基幹道場)의 창설 이후로 본다(강원식, 이정명 2002).

최초의 도장인 청도관은 이원국에 의해 1944년 8월 서울 서대문구 영신학교 강당에서 시작되었지만, 공식적으로 후진을 양성한 시기는 1946년 2월 27일부터 서울의 시천교당으로 이전하여 당수도 청도관이라는 도장 명을 사용하면서 부터이다(이원국, 1969). 글자 그대로 ‘푸른 파도’를 의미하며 청년의 기상과 활동력을 상징으로 한때 서울의 치안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분관으로는 국무관, 정도관, 청룡관 그리고 오도관 등이 있다. 특히 오도관은 6.25사변이후 군에 입대한 청도관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기도 하였다.

무덕관은 황기에 의해 해방 직후인 1945년 11월 서울 용산역 부근의 철도국에서 시작되었다. 지금의 교통부인 당시의 운수부에 부설형식으로 당수도장이 생긴 것이 수무양덕(修武揚德)의 뜻을 가진 무덕관의 효시다. 철도국이라는 특수한 기관을 중심으로 발전되면서 전국 각 지역에 넓은 보급성과를 단시간에 이룩하였다. 수련인구와 지역적 분포에서 타 관을 압도하며 5대 기간도장 중관의 세력이 가장 컸다(정정규, 2008).

지도관은 전상섭에 의해 1946년 3월 서울 소공동에서 조선연무관 공수도부로 시작되었으며 6·25사변 때 초대 관장인 전상섭이 납북되면서 ‘지혜로운 길’을 의미하는 지도관으로 개칭하였다. 초대 전상섭에 이어 2대 윤쾌병, 3대 이종우 등이 그 명맥을 유지했고 이교윤의 한무관이 지도관의 대표적인 분관이다. 하지만 이교윤은 한무관의 뿌리는 지도관이 아니라 조선연무관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조선연무관이 지도관으로 개칭되는 과정에서 전통성 시비에 관한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정경원, 2012).

창무관은 윤병인에 의해 1964년 9월 서울 종로에 위치한 기독교 청년회관에

서 YMCA권법부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전쟁이후 행방불명된 윤병인을 대신해 제자인 이남석, 김순배를 주축이 되어 영창고등학교의 ‘창’과 무도인의 ‘무’자를 인용한 창무관으로 간판을 바꿔달게 된다. 한편 이남석, 김순배와 갈등을 빚던 홍정표, 박철회는 창무관을 떠나 1956년 강덕원을 개관했다(강원식, 이경명 2002).

송무관은 노병직에 의해 1944년 2월 개성에서 시작되었다. 1946년 5월 십장생의 하나인 소나무의 푸르고 역동적인 의미에다 고려시대 수도인 송도, 그리고 노병직관장의 일본 유학생 시절 입문한 송도관의 송에서 빌려와 당수도 송무관이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다시 개관 하였다. 초대 관장인 노병직에 이어 2대 이영섭, 3대 강원식 등으로 명맥을 유지 하며 많은 인재를 배출했지만 5대 기간도장 중 관세가 가장 미약하였다(정정규, 2008).

광복 이후 현대태권도의 발전은 위의 청도관, 무덕관, 지도관, 창무관 그리고 송무관의 5대 기간도장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기간도장들은 각관만의 고유한 기술, 형, 지도법이 있었으며 나름대로의 독자성과 자부심 그리고 발생의 근거를 달리하는 등의 질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지관을 설립하는 등의 양적인 팽창까지 세력 확장을 통한 보급이 가속화 되었다. 이는 모체관에서 분리되어 나온 오도관, 강덕원, 한무관 그리고 정도관 등의 신흥관까지 구성될 정도로 역동적인 시기로 비춰진다.

2. 태권도겨루기의 경기화 과정

태권도경기는 태권도에 있어서 기본동작, 품새, 겨루기, 격파, 호신술의 5대 구성 요소 중에서 겨루기의 발전된 형태로 볼 수 있다. 겨루기는 품새를 통해 익힌 공격, 방어의 기술을 응용하여 실제로 상대방과 대결하는 기술이다. 여기에는 두 사람이 일정한 틀에 맞추어 연습하는 맞추어 겨루기와 기술의 제한이 없이 연습하는 연습겨루기 그리고 기술을 충분히 습득한 청·홍 두 선수가 일정한 경기규칙을 지키면서 승패를 가리는 시합겨루기 등이 있다. 태권도 겨루기 경기는 태권도의 공격기술 중에서 주먹지르기와 발차기만을 사용하고 몸의 전면만을 공격하되 얼굴공격은 발만 사용하며, 아래공격은 금지되어 있다. 더욱이 인체의 급소는 모두 보호구로 막아진다(대한태권도협회, 2013).

태권도가 본격적으로 경기화 되기 전에도 소박한 형태의 겨루기 경기가 존재하였다. 6·25전쟁 전까지 1세대 지도자들의 지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겨루기 경기방식은 급소 앞에서 멈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1세대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국내에서 수련한 2세대 지도자들이 등장함에 따라 급소 앞에서 멈추지 않고 신체에 직접 타격을 가하는 방식이 유행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발기술이 손기술보다 우세하게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겨루기 경기기술이 눈에 띄게 발전하게 되었다(송형석, 2005).

경기화가 만장일치의 찬성 속에 순조롭게 시작된 것만은 아니었다. 1960년대 중반 태권도의 경기화가 가시화되자 태권도 지도자 사이에 찬반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지만(강원식·이경명, 2002), 이들의 보수적 태도와는 달리 2세대 지도자들은 적극적으로 경기화를 추진하였다. 태권도의 경기화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실천한 대표적 인물로는 이종우를 들 수 있다. 그는 태권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대적 스포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경기화가 되면 대한체육회 정식 가맹단체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사단체들 중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나아가 이를 통합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송형석, 2005).

태권도 경기화에 대한 찬반논의는 결국 태권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입어 각 유파별로 제각각 시행되던 것에서 경기규칙을 제정함으로써 태권도 경기대회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장권, 2010).

태권도 경기는 1962년 10월 24일 제43회 전국체육대회에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었고, 1963년 2월 23일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대한태수도협회(現代한태권도협회)를 정식 경기단체로 승인함으로써 태권도의 본격적인 경기화가 시작되었으며, 시범경기를 가진 태권도가 이후 정식종목으로써 전국 무대에 첫 모습을 보인 것은 1963년 10월 4일에 개최된 제44회 전국체육대회가 호시라 할 수 있다(강원식 · 이경명, 1999).

대부분의 태권도 경기대회는 단체대항전의 경우 5인단체전, 개인선수권대회 같은 경우 체급별 경기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1968년 제1회 주한외국인개인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남자부, 여자부 경기가 각각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기존에 남성중심의 경기대회를 탈피하여 여성도 참여할 수 있는 경기대회로 경기 참여자의 폭을 확대한 시기이며, 이를 계기로 1970년에는 제1회 여자부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가 한성여고체육관에서 열리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여자태권도 경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한국여성태권도연맹의 창설과 발전은 물론, 이후 1979년 제1회 한국 여성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데 중추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이무현, 2010).

당시 대표적인 태권도대회를 살펴보면, 1963년 6월16일 제1회 전국중고등 및대학단체대항전, 1965년 4월 18일 제1회 전국태권도신인선수권대회, 1966년 7월23일 제1회 전국중고대종별개인선수권대회, 1966년 10월 28일 제1회 대통령기쟁탈전국태권도대회 등 태권도의 경기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태권도 경기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구축하자 1968년에는 제1회 주한외국인태권도선수권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태권도의 세계화에 기틀을 다지기 시작하였다(강원식 · 이경명, 2002).

그동안 태권도 경기규칙은 1973년 5월 제정 이후 최근 2010년 1월 까지 총 13회의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경기운영과 공정한 평가를 목적으로 수정, 보완되어 왔다. 또한 태권도 경기의 공정성 시비와 경기내용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고자 차등점수제, 서든데스제도, 전자호구 도입 등 적지 않은 측면에서의 변화를 통해 태권도 경기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양대승, 2003; 양대승 등, 2007; 정국현, 1999).

무도태권도에서 경기태권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지도관의 이종우 관장과 청도관의 엄운규 관장이 큰 역할을 하였다. 이후 김운용의 탁월한 외교능력까지 뒷받침 되어 태권도는 1973년 5월 28일 세계태권도연맹(WTF)을 창설함으로써 태권도의 국제화에 더욱 박차를 가했으며, 1975년 10월에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에 가맹을 한 이후, 1980년 7월 17일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공식경기로 승인을 받았다. 1986년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 종목 채택, 1988년 서울올림픽에 이어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결국 1994년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총회에서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올림픽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완벽한 경기화를 이룩하게 되었다.

3. 제주체육의 발전과정

제주도에서는 1910년 오현단 자리에 제주공립농업학교(제주관광산업고 전신)가 개교되어 신학문을 가리키면서 비로소 근대 체육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제주체육은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각종 운동경기 종목들을 받아들이며 저변을 확대해 나갔으며 1920년에는 일본인들이 주축이 되어 제주체육회가 결성되었다. 제주체육은 1941년 태평양 전쟁 발발로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1950년대 들어 체육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면서 1951년 6월 15일 제주도체육회가 창립하게 되었으며, 이해 10월 전남 광주에서 열린 제32회 전국체육대회에 육군 조병창 배구팀이 제주소속으로 첫 출전하였다. 이후 제주 체육은 한해도 거르지 않고 전국체전에 참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단체들도 조직되어 갔다.

1961년 5·16군사혁명 이후 체육정책이 민간주도에서 관주도형으로 바뀌었으며, 아울러 경기단체가 재정비되어 제주체육은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1964년에는 제주시민회관이 개장돼 도내 실내 스포츠 중흥의 계기가 되었으며, 66년 5월에는 제1회 도민종합체육대회가 창설돼 제주 스포츠의 근간이 되고 있다. 68년에는 제주도체육회 규약이 개정돼 도지사가 당연직 회장으로 선임하는 등 조직이 강화되었다.

1960년대 초반에는 제주제일중과 제주제일고 탁구가 전국을 제패하였다. 60년대 중반에는 태권도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후반에는 오현중과 오현고 수영이 전국무대에 두각을 나타냈다.

1970년대 접어들어 제주체육은 체육시설이 확충됐고 언론사와 직장 단체들이 대회 창설로 저변확대가 이루어지며 성장을 거듭하였다. 1970년 5월 오라벌에 현재의 제주종합경기장 모체가 되는 제주도공설운동장이 갖추어 졌고, 개장기념으로 제4회 도민체전이 열렸다. 72년 9월에는 외도수영장이 완공되어

제주수영의 터전이 되었다.

1971년에는 제주신문사가 도일주역전 경주대회와 백호기 전도국민학교축구대회를 잇달아 창설하였다. 아울러 이해 9월에는 제주도교육위원회와 제주탁우회가 단축마라톤대회와 전도초등학교 탁구대회를 개최하였다.

1972년에는 전국스포츠소년대회가 창설되자 예선대회로 체육 꿈나무들의 잔치인 전도스포츠소년대회가 열리기 시작, 선수 조기 발굴이 이루어 졌다. 또 72년엔 제주대학에 체육교육과가 신설돼 체육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973년에는 제주도교육위원회가 1교1기 운동강화 계획을 세워 추진해 왔으며, 74년에는 제주도체육진흥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체육진흥기금 모금운동을 전개해 갔다.

경기분야에선 73년 산천단에 종합사격장이 마련되면서 사격이 전국무대에 부상하기 시작했고, 경기단체도 19개로 늘어났다.

1980년대에 접어들자 제주체육은 전국소년체전을 유치했다 반납하는 등 우여곡절 속에 84년 5월 제13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유치, 성장의 기틀을 만들었다. 전국소년체전 개최로 인해 우레탄 트랙을 갖춘 주경기장을 비롯해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야구장, 정구장등을 한데 모은 제주종합경기장이 갖추어져 제주체육의 모태가 되었다. 또한 제주체육기금 13억여원도 모아져 도내 선수 경기력 향상에 쓰여 졌다.

1986년 9월에는 제10회 아시안게임 성화가 들어와 도일주 봉송을 하였다. 1988년 8월27일에는 제24회 서울올림픽 성화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제주국제 공항에 도착, 전 세계의 이목이 제주로 쏠리기도 하였다.

경기력 면에서도 제주체육은 괄목할 만 한 성장을 보였다. 제13회 전국소년체전에선 경남과 인천을 따돌리고 사상 처음 종합 11위를 마크, 만년 최하위에서 탈피하였다. 여세를 몰아 1984년 10월 대구에서 열린 제65회 전국체전에서도 제주도선수단이 성취상 1위를 차지하였다. 제주도선수단은 이후 전국체

전에서 8번이나 성취상을 수상, 모두 9차례 성취상배를 받았다.

1981년에 제주도 문화상 체육부문이 제정돼 이욱형 제주도체육회 사무국장이 첫 수상의 영광을 안기도 하였다. 83년 9월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안토니오 사마란치 위원장이 제주를 방문하였다. 88년 서울올림픽에는 제주출신 선수로 육상 마라톤에 김원탁, 사격에 강혜자 부순희 홍영옥, 근대5종에 김명건이 참가했으며 김원탁은 올림픽 성화 점화자의 영예를 누리기도 하였다.

1990년대에 제주체육은 전국체육대회를 유치, 훌륭하게 치러냄으로써 한단계 더 발전하였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 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며 국제대회는 물론 전국규모 대회를 적극 유치, 제주를 스포츠 터전으로 부상시켜 놓았다.

축구는 1993년에 제민일보사가 백록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를 창설, 제주에선 처음으로 전국규모대회를 도내에 상설 개최토록 하였다. 또 95년에는 서귀포시가 2002 한·일 월드컵 축구개최지로 선정돼 제주 축구의 위상을 높였다.

1990년에는 김원탁이 9월 북경 아시안게임 마라톤경기에서 당당히 우승했으며, 이해 11월에는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가 발족돼 도내 생활체육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91년 11월에는 제주도체육사가 발간됐으며 12월12일에는 대한체육회가 98년 제79회 전국체육대회 제주개최를 승인하였다.

1993년 2월에는 제주도와 제주시가 잇달아 육상 경기부와 수영 경기부를 창단했고, 인천제철 양궁부가 제주연고 팀으로 등록하는등 제주체육도 실업선수들을 확보하게 되었다.

1994년 8월에는 제주여상 출신인 부순희가 제46회 세계 사격선수권대회 여자 스포츠권총 개인전에서 우승, 세계 정상에 우뚝서는 대기록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이해 8월에는 제주종합경기장에서 제2회 한·중·일주니어종합경기대회가 열렸다.

1995년 3월 제주도체육회가 일본 고베지진피해 제주교민돕기 성금450여만원을 모금, 현지 교민들에게 전달했으며, 이해 10월과 11월에는 도내 골프장에서

LPGA투어 삼성 챔피언쉽 골프대회와 제5회 조니워커 인터내셔널클럽 선수권 대회 등 국제 골프대회가 연속으로 열려 제주가 국제골프의 무대로 부상하였다.

제주에서 제79회 전국체전이 열렸던 1998년 6월에는 체육기금을 포함한 예산54억원이 소요된 제주도체육회관이 개관되어 제주체육의 터전이 되고 있다. 98년 9월25일부터 10월1일까지 열린 제79회 전국체전에선 제주도선수단은 119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26,469점을 얻어 종합 14위를 마크하며 성취율 1위상과 모범선수단상을 수상하였다.

1999년에는 제28회 전국소년체전이 5월29일부터 6월1일까지 도내 일원에서 열린 것을 비롯해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들이 전개 되었다. 이해 6월에는 제주도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강연회 개최와 함께 2001년 제15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2002 세계청소년 유도 선수권대회를 제주에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에는 도내 기업인 제주삼다수가 탁구단을 창단하였다. 이외에 제주체육 육성을 위한 도내 대회는 물론 전국대회와 국제시합이 연이어 열렸다.

제주체육은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지리적 여건과 인적자원 열세 등으로 인해 타 지방과는 달리 근대 운동경기 도입이 늦어 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재 최남단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통해 동계강화훈련의 메카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는 타 지역과의 체육 교류 및 인프라 확보의 계기가 되었고 나아가 제주도 전체의 경제적 이점까지 확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체육은 해방이후 6·25전쟁 발발 등으로 한때 주춤거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6·25전쟁은 타 시·도 체육계엔 암흑기가 되었지만 제주에선 오히려 근대 스포츠가 태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대표급 선수와 지도자들이 피란민으로 대거 제주로 들어와 새로운 기술과 룰을 보급해 제주체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III. 연구결과

1. 제주 지역에 태권도가 도입된 시기와 관(館)에 따른 보급과정

우리나라에 최초로 공수도가 아닌 태권도라는 명칭으로 보급되어 행해진 곳은 현재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모슬포이다. 최홍희는 공수(空手)의 한국화 명칭인 ‘태권도’를 창안 하였다. 그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태권도를 보급하기 시작했던 것은 1953년 9월 모슬포에서 육군 제29사단을 창설하던 때라고 한다. 이는 그의 회고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때(1953년)에 일어난 일 중 내 생애 잊을 수 없는 두가지일, 하나는 나의 대를 이어갈 아들 중화를 얻게 된 것과 다른 하나는 나의 큰 꿈(태권도 보급)을 실현하는 데 발단이 된 보병 29사단 창설 명령을 받은 것이다. 1953년 9월 나는 20개 현역 사단 중 마지막 사단을 바람 많고 돌 많고 여자 많은 삼다도로서 유명한 제주도 모슬포에서 창설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부대야말로 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정의롭고 모범이 될 기지로서의 사단 창설에 전심 전력을 다하였다.』 (최홍희, 1997).

그의 인용문을 본다면 태권도의 발상지는 육군 제29사단이며 제주도 모슬포가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인 셈이다. 이는 군태권도의 초석이 되어 군대라는 큰 조직을 바탕으로 근대 태권도 보급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육군 제29사단에서 행한 것은 군 조직 내에서 훈련과정으로 행해진 것으로 민간인들에게 영향력은 없지만 태권도 보급의 시초가 제주도라는 사실은 태권도인은 물론 제

주도민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1954년 6월경 육군 제29사단은 제주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고 이 시점에 문대식에 의해 대한민국의 최남단 제주 땅에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며 국기인 태권도가 도입 되었다.

확실한 도입 시기에 대한 근거자료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1954년 6월 문대식(文大植·본명 문봉준)이 제주무선전신국 통신사로 입사한 시점이 제주 태권도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대식은 관덕정 앞에 위치한 제주무선전신국에 근무하면서 틈틈이 개인 수련을 하였다. 그 당시 무선통신을 배우기 위하여 무선전신국을 찾았던 양윤석이 호기심을 갖고 수련하는 모습을 보고 배워 줄 것을 요청하여 문대식이 수락함으로써 제주 땅에 태권도가 뿌리 내리기 시작하였다. 도입 당시에는 ‘태권도’란 명칭이 아니라 ‘공수도’란 이름으로 도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공수도를 제주에 첫 선을 보인 문대식은 애월읍 고성리 출신으로 1946년 봄부터 서울 종로에 있는 YMCA권법부에서 충청도 출신인 윤병인 사범에게 공수도를 수련했으며, 1954년 제주에 근무할 때에는 2단을 보유하고 있었다(제주도태권도협회, 2006).

제주 태권도가 제주 도민에게 보급된 것은 1954년 10월부터이다. 초창기 제주 태권도는 계보를 중심으로 파급됐으며, 본격적인 보급은 1955년에 이루어졌다. 초기 가장 활발하게 보급을 주도한 것은 창무관 계보였다. 제주에 태권도를 처음 도입한 문대식 사범도 창무관 계보이다(제주도태권도협회, 2006).

1954년 6월 제주무선전신국에 근무를 시작한 문 사범은 관덕정 앞에 있는 전신국 뜰에서 시간을 틈타 개인 수련을 계속했으며, 10월께에는 수련생도 받았다. 당시 문 사범의 수련 모습이 지나는 청년들에게 자주 목격됐고 관심이 있는 젊은이 들이 배워 줄 것을 요청하면서 수련생이 생겨났다. 이 때 수련에 참여한 청년들이 김영하, 양윤석, 김한택, 김명현 등이다. 이에 관하여 양윤석과 김영하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무선통신을 배우기 위해 무선전신국에 갔는데 마침 문 사범이 수련하는 모습을 호기심을 갖고 보다가 배워 줄 것을 요청하자 문사범이 흔쾌히 수락하여 약 2개월간 단독으로 건물이 둘러싸인 마당에서 수련했다. 그 후 혼자 수련하는 것보다도 여럿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주변 사람들을 모았다.』(양윤석, 제주태권도50년사, 2006 재인용)

『1954년 11월7일자에 김명현씨가 저를 서문통 도장방에 찾아와 저에게 권고를 하는데 우리 복교 뒤에 무선전신국 운동장으로 가봅시다 이것이 첫시작 이고 태권도에 첫 생각이었다.』(김영하, 제주태권도50년사, 2006 재인용)

이런 증언들을 종합해 볼 때 본격적인 제주 태권도 보급은 1954년 10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체육회 50년사(2001)에는 “그는(문대식) 김순배, 이남석 원로 등과 같이 권법부 1기 수련생으로 입문하였으며, 창무관 관장인 이남석에게서 제주에 창무관 지관을 세워 달라는 요청을 받고 1954년 6월 10일 태권도장을 설립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창무관 제주중앙도장 임관대장에 의하면 1955년 6월1일자로 설립됐으며 관장은 당시 제주무선전신국 오기문 국장, 교사에 문대식, 간사장에 김영하, 간사에 양윤석 김한택 김명현으로 기록하고 있다. 간사장을 비롯한 간사들은 차후 특기생으로 구분되고 있다.

문대식이 사사로 보급되기 시작한 태권도가 정식으로 보급 된 것은 창무관 제주중앙도장이 설립된 1955년 6월1일 이후이며 1955년 7월5일자 당시 제주신보(제주일보 전신) 광고란에 공수도 창무관 제주도 분관 개설 및 수련생 모집을 게재하며 본격적인 보급에 나섰다. 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三陽會七治平聯있야當 試改官은背界四지緩

**患者에게
喜消息**

本人이市內病者를爲하여 一箇月間無料治療을施行하오니 多數의
來師受診하되기大望하나이다

**開
設
廣
告**

謹啓 時下初夏之節에江湖諸賢의健勝을祝幅하나이다
既히設置된 서울彰武館(空手道)은 全國各地方에分館을두고 修
道精進中 今般本道에도 分館을設置하게되였으니 道民諸位께서
積極의인協助와 鞭撻을바라오며 第一期生을左記要項에依據募集하
記

- 一、資格 中學生以上 및 一般人
- 一、入門 願書接受마勘 自七月五日 至七月十四日 二十日間
- 一、場所 濟州無線電信局 三徒里送信所前
- 一、目的 空手道傳習

但 詳細한內容은下午九時부터十時까지右記場所에問議하시와
懷紀四二八八年七月四日

彰武館濟州道分館長

그림 2 제주일보 광고란(자료출처, 제주일보, 1955)

1955년 9월1일자 제주신보 ‘공수도관 탄생, 교수는 문대식씨’란 제목의 기사에서 공수도 창무관에서는 본도에 분관을 설치하고 당수도를 교수하고 있고 분관은 7월16일 본관 사범 이남석씨의 내도를 계기로 하여 개관한 것인데 현재 교수는 문대식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임시도장으로 설치된 무선전 신국 앞에서 성인 학생 합쳐 30여명이 야간 8시부터 10시 까지 근 3개월에 걸쳐 수련을 받았다(제주신보, 1955).

창무관 입관대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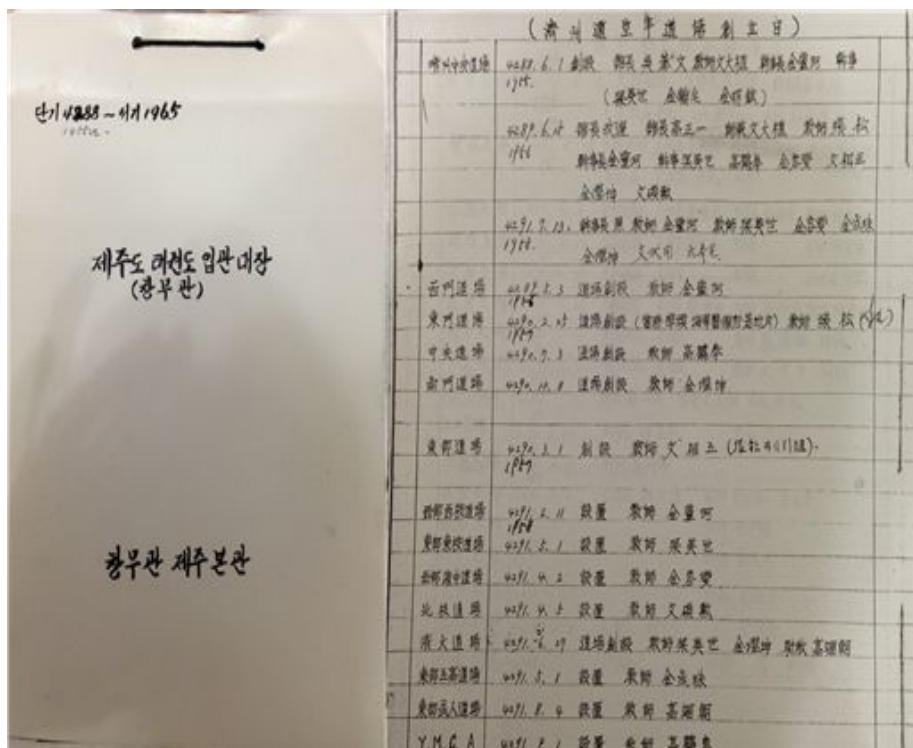


그림 3. 창무관 입관 대장(자료출처, 직접발췌, 2013)

<그림-3>에서도 제주 태권도는 1955년 6월1일 창무관 제주도 분관 즉 제주 중앙도장이 설립 이후 본격적인 수련에 들어가 제1기 수련생 모집을 계기로 보급 확산에 들어 간 것으로 판단된다.

창무관이 제주시를 중심으로 공수도 보급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1955년 7월에는 강덕원 계보의 이동희가 고향인 모슬포에서 지역 청년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펼쳤다. 당시 조선대학교 약학과에 재학중인 이동희는 전남 광주에서 진철 사범에게 사사를 받았다(제주도태권도협회, 2006).

제주체육사(양조훈, 1984, 190)에는 “이동희는 1955년 여름방학 때 고향인 모슬포에 내려와 보니 그때만 해도 군 세력이 득세해 이에 눌러 풀이 죽은 고향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태권도를 수련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래서 마을 청년들을 모아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라고 적고 있다.

이동희는 창무관 전남 관장을 지낸 전철 사범의 제자로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는 창무관 계보였다. 그러다 전철의 스승인 박철희와 홍정표가 YMCA 권범부에서 분리되어 나와 1956년 강덕원을 설립함에 따라 이동희 역시 자연스럽게 강덕원 계보가 되었다. 당시 제주대정중학교 강당에서 이동호 강유근 이원식 정대경 등 20여명에게 지도 보급했다(제주도태권도협회, 2006). 이에 따라 초기 제주 태권도 보급은 창무관 계보에 의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1956년 4월에는 청도관 계보의 장기종 사범이 당시 제주남초등학교 교정에서 태권도를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장 사범은 군복무 중 육군 제29사단 남태희 대위의 지도를 받았으며, 제주에 내려 올 때에는 2단을 소유하고 있었다. 지도관 제주도 분관은 세화를 중심으로 구좌지역 청년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련과 함께 연무대회도 실시하였다. 또한 1958년 6월에는 대한공수도 송무관 제주중앙도장(관장 김치규) 산하 5개 도장이 수련생을 모집하는 등 활동을 펼쳤으나 도입과정 등에 대한 기록은 남겨져 있지 않다(제주도태권도협회, 2006). 이같이 계보 활동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제주 태권도는 1958년부터는 도 전역으로 도장 및 지관을 잇달아 개설하는 등 본격적인 저변확대가 이루어졌다.

1) 창무관

창무관 제주도 분관은 1955년 10월7일부터 15일까지 두 번째 공수도 수련생을 모집함으로써 공수도 보급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제주 태권도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창무관은 1955년 6월 1일 공수도 창무관 제주도 분관인 제주중앙도장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보급에 나섰다. 창무관은 도장 설립과 함께 수련생 모집에 나섰으며 입관대장을 작성하는 등 행정체계도 갖춰 나갔다.

창무관 계보가 초기부터 보급에 활기를 띤 것은 1955년 7월과 10월 두차례 신문광고를 통한 수련생 모집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가 주효하였다.

1956년 6월9일에는 제주도내에서 처음으로 관덕정 앞에서 창무관 제주 지관 공수도

진급심사대회 겸 소연무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제주중앙도장 명칭을 ‘제주분관’에서 ‘제주지관’으로 변경됐고, 관장도 고정일로 바뀌었다.

공수도 진급심사 겸 소연무 대회에는 창무관 중앙도장 이남석 사범(5단)이 심사관을 맡았으며, 전인홍 도의회의장과 신상무 도경찰국장이 고문, 제주도체육회 · 제주신보사 · 영주신보사 · 제민신보사가 후원하는 등 제주사회의 관심거리가 됐다.

1956년 12월28일에는 창무관 서귀지관 도장 개관식도 있었다.

1957년에는 창무관 제주시내 동문도장 · 동부도장 · 중앙도장 · 남문도장이 잇달아 개설돼 수련생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으며, 승단자 배출과 함께 처음으로 제주시 이외의 지역인 서귀지관에서 승급심사가 이루어지는 등 공수도 저변이 굳혀 갔다. 이해 7월17일에는 제주도공수도협회가 결성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당시 제주 사회 지도층 인사로 짜여진 제주도공수도협회는 70만환 규모의 1957년도 수지예산도 승인하였다. 제주도공수도협회는 창무관 제주시지관 고정일 관장이 이사로 참여하며 의욕적으로 출범되었으나 활동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록이 없는 실정이다.

1957년에는 도장 개설도 잇달았다. 2월25일 동문도장이 개설됐고 이어 3월1일에는 제주시 동부도장, 7월3일에는 제주시 중앙도장, 10월8일에는 남문도장이 차례로 문을 열었다.

1958년에는 ‘공수도 창무관 확산의 해’라고 할 정도로 제주시내 도장 및 지방 지관이 줄줄이 개설되었다. 1956년에 2개소, 1957년 4개소가 생겨 6개소에 불과하던 도장 및 지관이 1958년에는 도장 8군데 · 지관 7군데 등 한 해 15개 도장이 개설되어 공수도가 제주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제주시내에 개설된 도장을 보면 서부서교도장, 서부제중도장, 북교도장, 동부동교도장, 오고도장, 제대도장, 동부성인도장, YMCA도장 등 8개이다. 특이한 것은 제주시 지역적 확산뿐만 아니라 연령대 구분으로 인한 성인층과 사회단체에 까지 공수도가 파고들어 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방으로 파급돼 2월15일 한림지관을 필두로 3월16일 화순지관, 5월1일 외도지관, 5월5일 법환지관, 6월15일 김녕지관, 7월25일 위미지관, 10월5일 광령지관 등 도 전역에 걸쳐 창무관 지관이 뿌리 내려갔다.

창무관은 1959년 12월20일 애월 하귀지관을 설치하여, 1950년대 말 제주중앙도장을 포함하여 도장 14개·지관 9개 등 모두 23개의 분관을 두게 되었다. 이외에도 창무관은 1958년 하반기에는 도장 및 지관을 순회하면서 심사를 실시, 수련생들에게 승급 기회를 제공하며 운동 의욕을 고취시켜 나갔다. 이에 제주중앙도장은 승단 및 승급자가 많아짐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체계를 갖추면서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도 병행해 전개하였다.

제주중앙도장은 1959년에 수련생들이 늘어나면서 일부 수련원이 폭력 등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신문지상을 통해 적극적인 해명과 홍보도 실시하였다. 당시 간사장 김영하 명의로 게재된 해명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326명의 수련생들이 남에게 해를 주거나 노상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창무관 간사 일동은 적발하여 주위를 줄 것이며, 운동할 때마다 훈시를 통해 모범적인 인품을 갖추도록 하고, 농촌지역 학생들이 시에 입주했을 때에도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김영하, 제주태권도50년사, 2006 재인용)

1959년에는 창무관 제주중앙도장 이외에 강덕원, 송무관, 지도관 계보 도장들도 활발한 활동을 보여 서로 간의 내면적 갈등도 나타났었다. 당시 창무관 제주중앙도장이 신문광고에 실은 선언사에서 이런 감정들을 엿볼 수 있다.

『협소한 도내에서 불필요한 별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이중심을 가져 이부종사 인격을 오히려 제주사회에 소란을 가져오게 됨으로 인하여 청소년 육성 발전을 위해서라도 관과 관의 교의가 되어야 할 것.』(제주신보, 1959)

1960년 2월 9일에는 서호지관이 개설되었고 이해 4월 10일에는 애월읍에 장전지관이

개관 하였다. 창무관 제주중앙도장은 지관 개설을 계속하여 8월 1일에는 한림읍 귀덕리에 귀덕지관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9월 1일에는 조천면 함덕리에 함덕지관을 개관하였다. 11월 1일에는 제주시 연동에 연동지관을 개관하였다.

창무관의 지도자들은 제주에서 배출된 유단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지관장은 그 마을에서 영향력이 있는 유지들을 영입하였다. 이 시기의 부모님들은 태권도를 배우면 불량배가 된다고 하여 자식이 태권도에 입문하는 것을 적극 반대하였다. 특히 농촌지역에는 태권도 보급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각 지관에는 그 마을에서 덕망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지관장으로 영입하였고, 태권도 1,2단인 교사나 조교를 통하여 태권도 보급을 하고 있었다. 수련 장소는 학교 운동장이나 동네 공터에서 맨발로 하였기 때문에 크게 구애받지 않았으나 그 동네 이장이나 유지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힘들었다고 한다.

1960년 8월14일에는 제6회 승단 심사가 있었으며, 1961년 8월20일에는 제7회 정기 승단 심사가 열렸다. 승단 심사에는 창무관 중앙 관장·사범 이남석이 서울에서 내려와 심사위원을 맡았다.

1961년 9월 6일자 제주신문에 발표한 승단 심사 결과를 보면, 공수도 창무관 제주중앙도장 제7회 정기 승단심사 판정이라 하여 4단보 김영하 등 100명이 승단하였다. 특이한 사항은 단증료 초단 1,00환, 2단 1,500환, 3단 2,00환, 4단 2,500환이었으며, 유단자 증은 900환이라 하여 단보와 단·급에 승급한 수련생들이 해당한다고 되었다. 또 한 유급자 배지는(5급이상) 700환, 유단자 배지는 900환이며 유단자 허리띠 마크는 1,000환이라고 되었다. 당시 태권도 유단자가 되면 배지를 달고 다닐 정도로 실력도 있었지만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을 알 수 있다.

1961년 6월에는 제주에 태권도를 보급한 문대식 사범이 창무관 제주중앙도장 사범직을 사임하며, 7월 5일에는 간사장 및 교범인 김영하가 사범직을 인수인계하였다. 그런데 김영하 사범은 이해 9월 2일자 신문광고를 통해 8월20일 심사와 관련 만족을 주지 못한 책임으로 자진 퇴관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결국 9월 20일자 신문광고에 공수도 창무관 제주도중앙도장 유단자 일동과 산하도장 및 각 지관도장 유단자 일

동의 명의로 김영하 사범 퇴관 사표 취하문을 게재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1962년 8월 14일 창무관 이남석 중앙 본관장에 의해 실시한 제주도 창무관 제8회 승단심사 결과를 보면 제주에 처음 태권도를 보급했던 문대식 사범이 5단으로 승단하였다.

1963년 1월 김영하 사범 후임으로 해군상사인 김덕룡 사범이 제주해군경비부에 전입과 함께 창무관 제주중앙도장 사범으로 임명되어 제주도태권도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나 제주에서 처음 태권도를 보급시킨 문대식 사범은 새로운 직장을 얻어 부산으로 이주하였다.

태권도가 경기화 되면서 창무관에서는 문무용, 고태봉, 좌봉택, 정건웅, 고익조, 김두은, 곽학일, 서장운 그리고 제주시에 거주하는 유단자들이 앞장서서 창무관의 발전과 경기기술보급을 위해 사라봉에서 야유회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경기 시범은 정건웅과 좌봉택 등이 주로 하였으며, 문무용은 심판법과 경기 기술 지도를 하였다. 그리고 제주시 출신들은 각 지관에서 온 유단자들을 극진히 모셨기 때문에 농촌지역 지도자들이 많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또 여기에는 현역 경찰이면서 유단자였던 김공빈의 지원도 있어서 창무관 각 지관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1965년 창무관에서는 태권도 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농촌 산간지역인 애월읍 어음리와 한경면 저지리에 지관을 설립하였다. 이해 5월에는 제주 해군경비부 현역 해군상사이면서 창무관 제주중앙도장 사범이던 김덕룡이 진해로 진출되면서 후임 사범에는 문무용이 임명되었다.

문무용은 창무관 제주중앙도장 사범으로 임명된 5월 어음지관 진급심사를 시작으로 제주전역에 심사를 하면서 태권도 보급과 선수 발굴에 전념하게 된다. 또한 1966년 2월 28일 창무관 계보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창무관 중앙도장 유단자 모임을 결성하였으며, 태권도 발전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매월 회의를 하는 열의를 보였다.

1966년 9월 30일에 발표된 제42회 창무관 승급심사에는 제주에서 처음 여자 수련생 2명이 승급하여 눈길을 끌었다. 여자 승급자는 2급 안정화, 4급 고영숙이다.

1966년 창무관에선 하효지관과 세화지관을 설립하여 태권도 보급과 선수 발굴에 노

력하였다. 서귀포 토평동과 보목리에서도 보급되고 있었으니 당시 서귀포 지역은 거의 모든 마을에서 태권도가 행해지고 있었다.

1967년 창무관 제주중앙도장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년부 수련생을 모집, 어린 이들에게도 태권도 보급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해 문무용 사범은 제주시 선수만으로는 경기력 향상과 선수 수급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여 범환 도장과 서호도장에 교사를 파견하여 서귀포지역 태권도 보급과 선수 발굴 육성에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많은 선수들을 배출했으며, 전도태권도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하였다.

2) 강덕원

제주 강덕원은 전남 광주에서 창무관 사범인 전철에게 수련을 받은 이동희에 의해 태동되었다.

이동희는 조선대학교 약학과에 재학중인 1955년 여름방학 때 고향인 모슬포에서 마을 청소년들을 대정중학교에 모아 놓고 권법을 가르친 것이 제주 강덕원의 출발이다.

강덕원은 초창기 수련생들이 모슬포 및 인근지역 청소년들에게 파급을 시킴으로써 확산되어 갔다. 또한 1956년 모슬포 제2훈련소 콩나물 공장자리(하모리 1100번지)에서 100여명의 수련원을 모아 지도를 하였다. 더불어 이동희 사범은 1956년에는 제주시에서 기거하면서 탐동 얼음공장에서 수련생을 지도하였다.

강덕원은 당시‘공수도’가 아닌‘권법’또는‘파사권법’으로 수련생을 모집하였다.

1958년에는 강덕원 무도회 제주중앙도장(관장 고담용)을 설립, 1월20일부터 2월10일까지 권법술생을 모집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펼쳤다.

강덕원은 1959년 활발한 활동을 전개, 3월26일에는 서울 경무대 경찰서에서 열린 이승만 대통령 탄신 축하 전국 무술대회에 참석, 처음 제주 태권도가 전국대회에 참가한 기록을 남겼다. 당시 강덕원 중앙관장 박철희가 경무대 사범직을 맡고 있었는데 이 같은 인연으로 제주 수련생들도 참가하게 되었다.

이 해 6월15일~21일에는 강덕원 파사권법 제주도장(사범 이동희)이 무도 선행과 국민의 체위 향상을 위한 수련생 모집 공고를 내기도 하였다. 이어 7월11일~18일 한라산

영실에서 유단자 합숙훈련을 실시하였다.

1959년에는 조남기가 전 배성대학 강의동에서 50여명을 대상으로 수련을 했으며, 중문에선 강정구 사범이 지관을 설립하여 30여명을 지도하였다. 이처럼 강덕원은 1950년대 말에는 제주도 서남부 지역은 물론 제주시까지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1950년대 말 대정·안덕 등 제주도 서남부 지역과 제주시에서 활동해온 강덕원 계보는 1960년대에도 대정·안덕·중문을 중심으로 활발한 보급 활동을 펼쳤다.

강덕원 계보에서는 강정구가 1960년대 안덕면 서광리와 중문면(현 서귀포시 중문동) 중문리에 지관을 설립하여 태권도 보급에 노력하였다. 이에 관한 강정구에 증언은 다음과 같다.

『중문지관은 조남기가 중문중학교에 교사로 재직할 당시였기 때문에 쉽게 지관을 설립할 수 있었다.』 (강정구, 제주태권도50년사, 2006 재인용)

그러나 중문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조남기가 제주대학교 교수로 직장을 옮기면서 고북래에 의해 보급되던 강덕원 계보의 중문 지관은 고북래가 외국으로 떠나면서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1961년 10월11일에 대한태수도협회에서는 각 관의 합의하에 공인단 심사가 서울에서 처음 치러졌다. 여기에 제주에서는 대정읍 출신 강정구가 참가하여 공인 3단을 받았다.

제주에 강덕원 계보를 심은 이동희는 제주시에서 약국을 경영하며, 틈틈이 태권도 보급에 나섰고 모슬포 지역은 강정구 사범에 의해 꾸준히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제주시에선 1960년대 초반 조남기 사범이 제주대 농수산학부 교육과정에 특수체육(태권도) 과목을 설강하여 매주 6시간씩 200여명에게 태권도 이론과 실기 등을 2년간 지도하였다.

1960년 초반에는 신상은 사범이 애월 광지리 광금초등학교 교정에서 36명의 수련생을 지도하는 등 250여명의 제자를 배출, 이들 중 15명이 유단자가 되기도 하였다.

1961년에는 고선식, 1964년에 허호주·임문규 사범 등이 상모 3리 향사, 하모리 구

농협 2층 도장을 차려 수련생을 가르쳤다. 또 1966년에는 강정구 관장이 서림지관을 설립하여 30여명을 지도하였다.

장덕원 계보는 제주에서 보다 외부로 진출한 유단자들이 많은 편이다.

장덕원은 1962년 9월15일 대한태수도협회 제주도지회 결성에도 적극 참여하였으며, 1963년 유단자 자격 심사에도 관여하는 등 제주 태권도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3) 청도관

청도관이 제주에 도장을 연 것은 1956년 4월 옛 제주남초등학교 자리(현 천주교 중앙성당)이다. 당시 사범은 군 복무 중 육군 제29사단 남태희 대위로부터 태권도를 배운 장기종이다.

장기종은 군 복무를 마치고 제주시 용담2동에 거주하면서 당시 제주남국민학교에서 수련생을 모아놓고 태권도 보급을 시작했으며, 이후 무근성 장공장(송죽학원 자리), 제주상고(현 제주중학교) 교정 등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지도하였다.

제주시에서 뿌리를 내린 청도관은 1958년에는 대한태권도 청도관 제주중앙도장을 개설, 신두방을 관장으로 영입하여 2월에는 제1기 수련생을 공개 모집하였다. 청도관은 다른 계보와 달리 1958년 2월18일자 제주신보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태권도’란 명칭을 사용하였다.

청도관 제주중앙도장은 1958년 10월25일에 다시 수련생 모집광고를 하였다. 이 때에는 도장이 8개로 늘어나 그 동안 보급이 활발했음을 보여줬다. 8개 도장은 알파벳 A~H까지 순번으로 되어 있었다. A. 남문도장(구 남초등학교 교정, 교사 김선준) B. 함덕도장(교사 한생근) C. 신촌도장(교사 고춘택) D. 삼양도장(교사 송지우) E. 도두도장(교사 문복순) F. 신업도장(교사 김대전) G. 하가도장(교사 고종권) H. 남읍도장(교사 장경옥) 이처럼 청도관 도장은 제주시와 애월·조천 지역을 중심에 있었다.

활발하게 활동하던 청도관 제주중앙도장은 1959년 장기종 사범이 개인 사정으로 태권도 지도를 못하게 되면서 침체의 길로 들어서기도 하였다.

1950년대 말 침체에 빠졌던 청도관 계보는 1960년대 들어 현맹호에 의해 다시 활성

화 되었다. 현맹호는 문대식 사범에게 태권도를 배워 유단자가 된 후 군에 입대하였다 (입대 1959년 6월10일~제대 1962년 2월6일). 당시 육군 제29사단장 최홍희 소장으로부터 태권도 실력을 인정받고 부대 내에서 태권도를 지도하였다. 군 복무 중 오도관 관장인 사단장 최홍희로부터 전관을 권유받아 문대식 사범의 허락을 받은 후 전관하였다.

현맹호는 군에 입대 후 모슬포에 있던 육군 부대로 진출되었다. 군 복무 후 1962년부터 제주상고 교정에서 청도관으로 태권도장을 개설하였다. 장기중 사범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우다가 중단하였던 청도관 수련생 중 많은 사람이 현맹호 사범에게서 다시 태권도를 배웠다.

당시 사범 현맹호, 교사 강국원, 고국대 등이 있었다. 수련생은 백여명 이었으며 약 2~3년후 수련생 중에 많은 사람이 유단자가 되었다. 수련장소로는 주로 제주상고 교정을 이용하였으며 1965년부터는 무근성 소금공장 앞마당에서 수련을 하기도 하였고, 그 후 제주경찰국 연무장에서 하기도 하였다.

현맹호 사범이 1967년 경찰이 된 후 당분간 청도관 활동이 미미하였으나 월남전 참전 후 귀국한 주월 한국군 태권도 시범단 출신의 강국원 사범이 1975년부터 김봉조 관장이 운영하는 금산체육관에서 청도관 소속으로 태권도를 지도하면서 수련생이 100여명으로 늘었다.

김봉조 관장은 1974년 이후 제주시 남주지역 태권도 발전을 위해 제주도청 인근(현 제주시청 앞, 제주경찰서 남부지구대 남쪽) 건물을 임대하여 태권도를 보급 발전 시켰다. 사범은 김동규였고 당시 수련생은 40명 정도였다. 1973년 김동규 사범이 경찰이 되면서 폐관되었으나 금산체육관에서는 강국원 관장, 김창중 사범 체제로 청도관 소속의 태권도 수련생지도를 계속하였다.

강국원 관장은 청도관 계보를 제주에서 1970년대 말까지 이어갔으며, 그는 전국체육대회 제주대표선수로 참가하기도 하였다.

4) 오도관

제주에서 오도관은 1960년부터 모슬포에서 수련생 배출한 기록이 있다. 1960년 9월6일 당시 육군 전투병과 사령관인 최흥희 소장이 제주를 방문, 제주 경비사령부내에 설치된 오도관에서 관원 심사와 대정중 강당에서 오도관 제1기생 심사를 실시하였다.

1960년 모슬포에서 태권도 보급에 나선 오도관은 1964년 3월까지 활동을 하였으며, 당시 대정관내 육군 제1훈련소 소속 군인 40여명과 민간인 35명이 수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외에 오도관 계보는 1960년대 말 한림읍 출신 장영섭이 군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전역하면서 한림에서 창설되었다. 1970년 장영섭 관장(4단)은 오도관을 제주시 관덕정 옆 구 법원 건물로 이전 하고, 도 협회 기획이사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이후 장영섭 관장이 고인이 되면서 오도관 계보는 전기복이 1974년부터 1976년까지 관장 직을 맡았다.

전기복은 고향이 전라북도 진안이며 군에 입대하여 태권도를 수련하다 1967년 가을 전역하여 한경면 고산리에 정착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보급에 나선다. 이에 관한 전기복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혼자 집 근처 공터에서 호신을 위해 혼자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구경하던 젊은이들이 가르쳐 달라고 하여 무료로 지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군에서 전역하여 한림에 오도관 도장을 개관한 장영섭의 제의를 받아 1970년대 이후 고산태권도장을 개관, 오도관 계보로 수련생들에 수련비를 받으며 지도하게 되었다. 무릉초등학교 교장의 부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담당교사가 김형우였다. 이때 내가 직접 도복을 입고 학교 강당에서 대련을 하며 김형우에게 태권도를 배워 줬다.』(전기복, 제주태권도50년사, 2006 재인용)

이후 김명철과 초등학교 교사인 김형우가 관장 직을 놓고 분란을 겪었으나 1977년 김형우가 제3대 관장이 된 뒤 계속 이어졌다.

5) 지도관

대한태권도 지도관 제주도 본관이 시작은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문실이 부산 지도관(관장 장연진)에서 수련하면서 비롯되었다. 고교 졸업 후 제주에 온 문실(당시 2단)은 1957년 4월5일 안보길과 함께 구좌읍 세화리 소재 세화공회당에서 공수도 지도관을 창설하였다. 당시에는 안보길 교사를 주축으로 60여명의 청년들이 수련을 하였다.

구좌 지역을 중심으로 보급을 펼친 지도관은 1959년 8월15일 첫 연무대회를 실시,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 활동도 전개하였다.

공수도 지도관 연무대회는 1959년 8월15일 제1회를 시작으로 1960년 8월27일 제2회 연무대회, 1963년 10월27일 제3회 연무대회를 개최, 대련을 중시한 기술향상과 태권도 저변확대에 노력하였다.

1963년 말 제주시 대한극장(현 코리아극장)에서 안보길 사범은 7명 정도의 관원에게 무료로 지도하였으며, 1964년부터 1966년까지 맹호 태권도교관으로 군복무를 마친 안보길 사범은 탐라체육관에서 수석사범으로 관원들을 지도하다가 1967년 제주시 동문노타리 김 약국 옆 건물 2층에서 태권도 지도관 중앙도장을 차려 관원 50여명을 지도하였다.

1972년 구 오현고 건물(제주시 중앙로) 3층에 교실 2칸 정도에 태권도 지도관 제주도 중앙본관(관장 6단 안보길, 총무 3단 한광용)을 설립, 관원 130여명을 지도하였다.

1974년부터 1975년까지는 총무 한광용(관장 안보길)이 광양 구 주차장 뒤쪽에 있는 고려예식장 앞에 건물을 신축하여 중앙본관을 이전 100여명의 관원과 1972년도에 태권도를 배운 수련생에 의해 추자, 토산등지에서도 수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1976년에서 1977년까지는 제주시내 동문통 동문 파출소 앞 건물(관장 안보길)로 태권도 지도관 본관을 이전하여 100여명의 관원을 지도하였다.

6) 송무관

송무관 계보가 제주에 보급된 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1958년 6

월 도장 수련생 광고가 남아 있어 1958년 이전에 도입된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광고에는 대한공수도 송무관 제주중앙도장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관장은 김치규였다. 1958년 6월20일부터 6월말 까지 중앙도장을 포함해 5개 도장에서 수련생을 모집하고, 접수처는 칠성통 ‘아세아마크’로 되어 있다.

수련생 모집 도장을 보면 세관 앞에 위치한 본관 중앙도장(사범 노병직)을 비롯해 화랑도장(자유당 본부, 교사 김명현) 송당도장(중부교회, 교사 강석주) 등 5개 이다. 당시 중앙 관장인 노병직을 사범으로 소개한 것을 보면 중앙의 지원을 받아 보급 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송무관 제주중앙도장은 1959년 3월27일에는 제1회 심사를 송죽기술학교내 본 도장에서 실시하였다. 심사에는 사범으로 대한공수도회 이사장겸 중앙송무관 노병직 관장이 참석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송무관 계보는 창무관에 4번으로 입관하여 단보까지 받았으나 계보를 이탈한 김명현에 의해 서문다리 북쪽 삼도동 부근에서 수련생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계보에 의한 세력 확장이나 선수 육성을 했다는 근거와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제주태권도협회의 창설과 변천과정

제주태권도협회가 창설된 과정과 연무형태의 태권도가 경기형태의 태권도로 처음 발돋움 했던 시기부터 경기화 이후 전국태권도대회에 두각을 나타냈던 시기, 세계선수권대회 유치를 성공하였던 시기, 집행부가 교체되었던 시기 그리고 제주평화기 전국태권도대회를 상설유치 및 개최에 성공했던 시기까지, 변천형태에 따라 다섯 가지 시기로 구분하여 나눌 수 있겠다.

이에 제주태권도협회의 변천과정을 태동기(1957년~1975년), 성장기(1976년~1992년), 발전기(1993년~2002년), 전환기(2003년~2004년) 그리고 도약기(2005년~2014년)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1)태동기(1957~1975)

1954년에 태권도가 제주에 도입된 이후 3년 만인 1957년부터 제주태권도협회의 결성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고 1970년대 중반까지 제주에 태권도가 도입된 이후 경기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시기이다.

제주도는 휴전 후 혼란스러웠던 사회 분위기가 점차 안정됨에 따라 단체 및 기관의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1957년에 제주도씨름협회와 제주도축구협회 등이 결성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한 공수도(태권도) 역시 1957년 7월 17일 관덕정에서 당시 제주도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던 강제량을 비롯하여 지역 유지와 상공인들이 다수 참여 속에 제주도공수도협회 결성식을 추진하게 된다(제주도태권도협회, 2006). 이는 당시 공수도 보급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으며,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태권도는 단일 명칭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다만 1954년 제주도 모슬포에서 창설된 육군 제29사단 사단장으로 있던 최홍희가 1955년 명칭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태권도’라 칭하고 1959년 9월 대한태권도협회를 창립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관장들의 반발로 쉽게 정착하지 못했으며 대한태권도

협회 역시 4.19 혁명으로 공식적 출범을 하지 못하였다(최홍희, 1997).

1961년 9월 지금 대한태권도협회의 전신인 대한태수도협회가 창립되고 이듬해 6월에 대한체육회에 가맹경기단체로 가입 신청을 하고 경기화 작업에 들어가면서 태수도라는 명칭으로 단일화 되기 시작하였다(강원식 이정명, 2002). 제주도에서도 역시 1961년 이후부터 공수도가 아닌 태수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경기단체 설립도 추진되었다.

1962년 9월 15일에는 각 계보를 통합한 대한태수도협회 제주도지회가 결성되어 초대 회장에 창무관 제주중앙도장 고정일관장, 부회장에 이동희가 추대됐으며, 문대식 사범이 전무이사를 맡았다. 이사에는 김영하 고헌봉 조남기 이동호 고성홍 김익우, 감사에 문무용 현맹호가 각각 선임되었다. 태수도 제주도지회 결성에는 창무관에서 문대식·문무용, 청도관에서 현맹호·박대성, 강덕원에서 이동희·조남기가 참석하였으나 송무관에선 불참하였다(제주도태권도협회, 2006). 태수도 제주도지회에서 송무관의 불참과 지회 구성원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보아 그만큼 도내에서 세력이 약했고 이에 반해 지회 참석과 주된 구성원의 창무관, 청도관 그리고 강덕원은 상대적으로 세력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대한태수도협회 제주도지회는 1963년 2월 10일 ‘제주도태수도협회’ 명칭으로 제주도 체육회 가맹경기단체로 가입 승인을 받았다. 아울러 대한태수도협회는 2월23일 대한체육회에 27번째 가맹경기단체로 가입하였다(제주도체육회, 2001).

제주도태수도협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함으로써 1963년 8월 11일에는 경찰국 연무장에서 단 인준심사가 실시되었다. 인준 심사에는 대한태수도협회 중앙심의회위원 박철희 사범(7단)이 내려와 심사를 진행했으며, 도내 창무관 강덕원 청도관 송무관 초단이상 3단까지 유단자 등이 참가하였다. 일단의 협회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 된 승단 인준 체계의 기초가 다져졌다. 당시 제주도 태수도계의 움직임은 권범·공수도·당수도·태권도 등 잡다한 명칭을 일소하고 혼란을 방지하여 체육 경기로서의 태수도의 자세를 정비하는 건전한 방향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본도 체육계 발전의 또 하나의 고비로 보아지고 있다(제주신문, 1963.8.21).

제주도태수도협회가 창설된 1963년 이후부터 협회가 주관이 되어 전국체육대회에 참

가하게 됐으며 태권도 1세대들이 빠르게 태권도 경기화에 적응하기 시작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1962년 10월 24일 태권도 종목이 제43회 전국체전(대구)에 시범종목 참가를 시작으로 그 이듬해인 1963년 10월 4일 전북 전주에서 개최된 제44회 전국체육대회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강원식 이경명, 2002). 이에 제주도태권도협회는 1963년 2월 10일 제주도체육회에 가맹경기단체로 승인을 받으며 태권도 경기에 참가시켰다(제주도체육회, 2001). 경기에 참가하면서부터 제주태권도는 급속도로 경기화 되기 시작하였다.

1963년 10월 전북 전주에서 개최된 제4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제주도선수단은 제주신문사 팀으로 출전하여 예선에서 충청북도 대표인 제천체육회 팀을 4-1로 이겼으나 준준 결승에서 강원도 대표인 지도관 춘천지관 팀에 3-4로 패하였다. 당시 선수로는 창무관 출신들과 강덕원 출신들로 구성되었으며 지도자는 문무용이었다(제주도태권도협회, 2006). 제주태권도는 제44회 전국체육대회를 4위로 마감하며 입상에는 실패하였으나 창무관과 강덕원을 중심으로 태권도 1세대들이 빠르게 태권도경기화에 적응하며 가능성을 보인 대회라 하겠다.

1964년 9월18일에는 제주시민회관에서 제주도체육회 주최, 제주도태수도협회가 주관으로 재일동포 초청 친선 태수도대회가 열려 1천여 관중이 모였다. 이를 계기로 일본에 돌아간 이들은 한국대표팀을 초청하기도 하였다. 한편 동년 4월 공수도의 명칭을 고집하던 탐라관 도장이 모체가 되었던 창무관으로 들어오면서 태수도로의 도내 전관의 명칭 단일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제주도태권도협회, 2006). 재일동포와의 교류사업을 통해 제주태권도협회는 지역도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태권도 저변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결국 협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해준 유치전략 이벤트가 되었다.

1965년 ‘대한태수도협회’가 ‘대한태권도협회’로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제주도협회에서도 8월5일 ‘대한태권도협회 제주지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명칭은 바뀌었으나 1965년에는 공수도와 혼용하여 사용되다 1966년 1월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태권도’로 불려

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협회는 임원 개선을 통하여 제2대 임원으로 회장에 이동성, 부회장에는 제주에 강덕원 계보를 심은 이동희와 창무관 출신이며 체육교사로 행정에 밝은 김두은, 전무이사에 창무관 출신으로 리더십과 경기기술 지도가 뛰어난 문무용, 총무이사에 창무관 출신으로 선수출신인 정건웅, 이사에 청도관에서 현맹호·강국원, 창무관에서 고훈봉·양운석·좌봉택·양대경, 강덕원에서 강정구·조남기, 감사에 박성관, 고국태가 선임되었다. 임원들은 창무관·강덕원·청도관 순으로 구성되었다(제주도태권도협회, 2006). 협회는 임원개선으로 점차 구색이 갖춰졌으며 3년 임기 동안 협회 행정의 기틀 마련과 경기력 향상에 큰 공적을 세웠다.

1966년 5월에는 제1회 도민체육대회가 창설돼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경기를 치렀으며 12월에는 제주에서 최초의 태권도대회인 제1회 도지사기 및 교육감기 전도태권도대회가 제주시민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제2회 대회까지 창무관에서 주최하다가 이후 제주도태권도협회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개최되고 있는 도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통 있는 대회로 발전하였다(제주도체육회 1991, 안영익, 2002). 제주도에 태권도 보급과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창설한 전도태권도대회로서, 이 대회를 통하여 수많은 제주도태권도 대표 선수들이 탄생되었다. 특히 창무관 출신들이 대회 경비를 직접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1968년 7월6일 제주도태권도협회는 회의를 갖고 ‘대한태권도협회 제주중앙도장’을 발족 시켰다. 그 배경에는 1960년대 후반 전국체육대회 태권도 경기는 시·도간 경쟁이 과열되기 시작하였다. 도세가 약한 제주도선수들은 편파적 판정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주도협회 임원들과 창무관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 제주에 있는 계보 통합을 모색하게 되었던 것이다(안영익, 2002).

당시 신문 보도 내용을 보면 ‘태권도 단체 통합-관장에 고정일씨’란 제목에 ‘도내 창무관 강덕원 청도관 등의 대표들은 태권도 단체의 통합에 합의(가칭 대한태권도협회 제주중앙도장)하고 관장에 고정일씨(오현중고교장)를 추대하였다. 이로써 통합된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에서는 전국체전 출전 등이 불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기

록하고 있다(제주도태권도협회, 2006).

이에 대해 당시 통합을 주도했던 문무용 관장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태권도가 경기화 되면서 각 계보간의 파벌은 더욱 심해지고 있었다. 제주대표 선수단은 대부분 창무관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타관출신 심판들은 제주 선수들에게 종종 편파적인 판정이 내려졌다. 따라서 이러한 편파 판정을 극복하려고 제주관을 만들어서 대한태권도협회에 등록하였다.』(문무용, 제주도태권도협회, 2006 재인용)

제주태권도는 당시 각 계보의 관장들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통합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제주도협회에서는 전국체전 메달 획득만이 협회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각 계보 관장들이 이에 협력했다는 것은 제주에 있는 모든 태권도인들의 응집력을 보여준 것이며 특히 중앙협회 보다 10여년 먼저 통합과정을 거쳐 결의에 이르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후 7월 10일 대한태권도협회장 앞으로 공문을 발송했지만 중앙 협회에서도 관 통합을 추진 중이었기 때문에 등록 서류는 다음해 반려되고 말았다. 협회에 협력하지 않은 일부 도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계보에 의해 선의의 경쟁을 하며 각 마을에 보급되던 제주태권도는 이러한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계파 간 경쟁이 약화되어 쇠퇴하기 시작한다. 특히 지도자들의 군 입대와 산업화의 영향을 받아 각 마을에 설립됐던 지관들은 존폐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제주도태권도협회, 2006).

1969년 제주도태권도협회 제3대 임원으로는 회장 임희준이 추대되었다. 협회 임원들은 대부분 창무관 출신들로 구성되었으며, 점차 치열해지던 시도 간 경쟁에 뛰어들게 된다.

1972년 제주대학교에 체육학과 설치로 고교우수선수 들이 대학 진학의 길이 열렸다. 뿐만 아니라 그 우수선수들이 다시 지도자로서 우수한 선수들을 보급 및 양성하면서 본격적인 제주태권도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는 제주대

학교 체육학과 2기로 졸업하고 지도자로 일생을 바친 제주태권도협회 전 상임 부회장인 이동건의 증언에도 알 수 있다. 증언은 다음과 같다.

『나는 일반부보다 고등부에 관심을 뒀어 이유는 당시 전국대회에 입상만 하면 특기생으로 제주사범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어 졸업과 동시에 교사로 임용될 수 있었지 고등학생들에게 대학진학의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었지 제주도 특기교사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공이 바로 태권도라는 거야...』 (이동건과의 면담, 2013년 4월 7일)

같은 해 제주도태권도협회에서는 처음으로 중앙협회 김순배 심판부장을 초청하여 심판 강습회 개최를 시작으로 2~3년 주기로 제주도에서 개최하였다(안영익, 2002). 제주에서 개최한 심판 강습회는 향후 지도자와 심판들의 자질 향상과 중앙협회와의 레포(rapport)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 당시 정책적으로 체육 진흥 정책이 강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스포츠 소년단이 발족되어, ‘전국스포츠소년대회’가 창설되었다. 전국체육대회에서 중학교 부를 전국스포츠소년대회란 명칭으로 분리하여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맞춰 그동안 도지사기 및 교육감기 대회로 개최하여 오던 대회를 대공분실장기, 제주교육대학장기 대회를 겸하고 초등부 경기를 신설하여 4월에 개최하였다. 전국스포츠소년대회 참가 후 7월에는 제주도체육회 사무국에서 도장 통합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여 9개항을 결의하고 이듬해인 1973년 2월 제주도 체육회 제8차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결의내용을 발표하였다(제주도태권도협회, 2006). 도장 통합을 발표함으로써 각종 도내 태권도 대회와 전국체전 참가에 따른 선수 선발 등의 사업 추진으로 행정 체계의 정비가 이루어 졌다. 이는 협회가 도내 태권도 활동의 중심축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점한 계기라 하겠다.

1974년 제주도태권도협회의 사업 계획은 제1회 전도 초·중·고교 및 일반

개인선수권대회 개최를 비롯하여 제3회 전국스포츠소년대회 예선대회, 제9회 도지사기 및 교육감기 쟁탈 태권도대회, 전국체전 선발전 개최, 전국스포츠소년대회 참가 선수 합동 훈련, 전국체전 참가 선수 및 유단자 합동 훈련, 동·하계 강화 훈련, 제1회 아시아 태권도대회 지도자 파견, 전국체전 평가회 개최 등을 내용으로 수립되어(제주도태권도협회, 2006) 선수 육성 체계로 변화가 상당히 급진전 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971년에 취임한 제4대 유원철 회장이 2년 임기 후 재출범 하였지만 1974년 중도 하차하고, 제5대 이동희 회장체제 역시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인 1975년에 집행부 총사퇴의 위기를 맞게 된다. 하지만 유기천 제주도 부지사를 제6대 회장에 영입 하면서 새로운 집행부 임원을 구성하며 위기를 모면한다(제주도태권도협회, 2006). 이는 1972년 태권도 경기규정의 개정 및 정비, 1973년 세계태권도연맹의 창립과 국기원 탄생 등 국기 태권도 육성 정책에 힘입은 바가 큰 반면 전국체전과 전국소년체전 메달 다수 획득 종목으로서 제주 체육 전반에 태권도의 비중이 커지고 도민 관심도 높아지면서 협회 활동에 대한 기대가 커진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여 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적지 않게 노출 되었다. 임원의 교체가 이루어진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협회가 안게 되는 큰 부담으로 볼 수 있다.

1960년대 전반기 제주 태권도는 사회적 혼란스런 환경에 힘입어 개인의 호신용 무도로써 급속히 전파되었다. 1960년대 중반기부터는 경기화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경기력 향상과 저변확대에도 기여하였다. 후반기로 넘어오면서 내적으로는 관 통합으로 경쟁체제가 약화 되었으며, 외적으로는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태권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도장도 점차 침체되었다. 또한 선수층은 빈약하여 세대교체도 이루어지지 못해 1970년대 초반에는 경기력도 저하되기도 했던 시기라 하겠다.

2)성장기(1976~1992)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제주태권도는 발전의 기틀을 다졌다. 1976년 2월7일에는 제주도태권도협회 제7대 회장으로 송희주가 취임하였다. 1978년 1월 14일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제주도태권도협회 제8대 회장에 장의전이 선임 되었고 9월 18일에는 각 관장 회의를 개최, 제주 총본관 결성에 합의하여 총 관장 또한 장의전회장이 선출되었다. 제주 총 본관도 중앙이 대한태권도협회 중심제로 단일화에 됨에 따라 10월 이후에는 제주도태권도협회 체제로 전환되었다. 특히 1978년 5월 22일에는 제주시 용담동 244번지에 제주도태권도회관이 개관되었다. 제주도태권도회관은 재일동포 홍성인이 적극적인 활동으로 재일동포 101명에게 성금을 모아 3층에 연건 94평 규모로 지어 기증한 것이다(제주도태권도협회, 2006). 제주도태권도회관을 기증 받음으로써 이후 태권도합숙훈련 및 태권도협회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선수육성과 행정체제를 갖추는 계기가 되었다.

1979년 12월 15일에는 제주 KAL호텔에서 제주도초등태권도연맹이 발족돼 김병읍이 회장을 맡았지만 활동이 미약하여 지속되지 않았다.

1980년 3월 20일에는 고익조 관장이 옛 신성여고 자리에 제주중앙도장을 개관하였으며, 3월 30일에는 탐라체육관 주관으로 제1회 전도 태권도 신인 선수권대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5월 4일에는 대한태권도협회 심판 강습회가 제주도태권도회관에서 76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제주도태권도협회, 2006). 전국심판강습회 제주개최는 중앙협회와 제주협회가 상호교류의 계기가 되었고 제주 임원들의 자질 함양의 기회까지 되었다.

1981년 제62회 전국체전에서 은메달 3개 획득에 그치는 성적을 기록하면서 체전 종료 후 장의전 회장이 사임하는 사태를 맞았지만 양성후 회장의 선출로 새로운 집행부 임원이 출범하였다. 하지만 양성후 회장 또한 8월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면서, 결국 송봉규 회장을 추대하여 비상 체제로 협회를 운영하게 되었다. 12월에 들어 정기 총회에서 임원 개편을 회장단에 위임함에 따라 체제를 새롭게 하였다(제주도태권도협회, 2006).

1982년 개최하기로 했던 전국소년체육대회 반납 조치 등으로 위기감을 갖게 되면서 최재영 지사와 양치중 교육감이 공동 기자회견을 자청해 경기단체 명예회장제 도입과 태권도를 비롯한 도내 강세 종목 8종목 집중 육성, 체육진흥기금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체육 진흥 방안이 나오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제주도태권도협회는 하기도 하였다(제주도태권도협회, 2006). 이러한 위기의 근본적인 발단은 경기력 저하로 인한 성적 저조에 있었는데 이는 관 통합으로 계보도장들이 폐쇄되어 결국 태권도 보급 및 선수육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안영익, 2002). 위태롭던 제주도태권도협회는 안기부 제주분실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면서 점차 안정을 취해 나갔다.

1983년 4월 30일 서울에서 열린 제4회 전국초등학교 태권왕 겨루기 대회에서 법환교 강익준이 준우승, 2위에 입상했다(안영익 2002, 제주도태권도협회 2006). 초등학교 선수로는 전국소년체전을 제외하고 일반 전국대회에 첫 메달을 획득한 것인데, 이는 제주 유소년 태권도의 활성화를 의미한다. 결국 유소년 태권도의 활성화는 연계 육성의 발판이 되어 제주태권도가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5월에 전북 전주에서 치러진 제12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차기 대회 제주 개최가 확정되었다.

1985년부터 제주도태권도협회는 연간 지속적인 훈련 체계를 갖추기 위해 협회장배 전도태권도대회를 창설하였다. 이 대회는 현재까지 우수 선수를 선발하여 강화훈련을 실시하는 육성체계를 갖추게 하였다.

1985년 1월 12일에는 제11대 회장에 정용사가 취임하였으며, 10월 7일에는 재일동포 태권도인 홍성인이 제주도문화상 체육부문상을 수상, 시상금 100만원을 태권도 육성금으로 협회에 쾌척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해 11월 21일에는 제주도 태권도 1세대 출신으로 헌신적으로 태권도 발전에 노력했던 정건웅 부회장이 별세하였다. 제주도태권도협회는 11월 25일 제주도체육회 앞 광장에서 추도식을 거행,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제주도태권도협회, 2006). 이는 제주도 체육계 에서도 1세대 태권도인들이 얼마나 살신성인했고 2세대 태권도인들이 그

당시으로써도 얼마나 길일만 했는지 알 수 있는 추도식 이었다.

1986년 제21회 대통령 하사기 쟁탈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 대회를 제주한라체육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제주선수단이 총 12개의 메달을 획득했으며, 일반부에서는 종합 3위를 기록하는 등의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같은 해 이사회에서는 제주도태권도유단자회를 결성하였다. 유단자회는 회원 상호간의 단합을 통하여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주대표선수단의 훈련비를 보조하는 등 후배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안영익, 2002).

1991년 3월 제주도태권도협회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정릉사 회장 후임으로 정이수를 선임되었다. 이해 5월에는 대한태권도협회 심판강습회가 제주도태권도회관에서 열렸으며, 6월에는 최세창 대한태권도협회장이 도협회를 방문, 전국대회 개최에 따른 협의를 하였다(제주도태권도협회, 2006).

1992년 6월 제27회 대통령기 타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가 한라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11월에는 제주도초등학교 태권도연맹이 창립총회를 갖고 홍가운 회장을 선출하였다(제주도태권도협회, 2006). 제주도초등연맹은 1979년 12월에 발족되었으나 재 창립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성장기에는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 준우승을 시작으로 다수의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배출하였고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 입상으로 선수들이 세계무대로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제13회 전국소년체전에서는 다시 전국 종합 2위의 성적을 기록 하는 등 경기력의 급속한 성장을 보여주었다. 경기력에 발맞춰 제주태권도협회는 내실을 강화 하였다. 심판강습회를 개최하며 임원 자질 함양에 나섰고, 전문 교육을 받은 태권도 지도자들의 탄생과 제주도태권도회관을 이용한 동·하계 합숙 훈련을 실시하는 등 그 체계를 갖춰 나갔다. 태권인 단합을 통하여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유단자회도 조직되었고, 안기부 제주분실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며 도내 기업체의 지원을 유도하여 협회 재정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 또한 갖춰 나갔다. 그리고 성공적 전국소년체전 개최를 바탕으로 협회 창립 이후 최초로 전국규모대회 유치 사업을

추진하며 보다 안정된 바탕위에서 제주태권도의 위상을 강화 하여 나갔다. 태권도사범이 직업화 되면서 각 지역 마다 선수 양성 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관이 문을 열었다. 체육관을 찾는 수련생이 많아지면서 태권도 역시 개인의 호신용 무도에서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으로 재인식되며 한층 성장한 시기라 하겠다.

3)발전기(1993~2002)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제주태권도는 지속적 성장에 이은 번성의 길로 들어섰다.

1992년도 말에 정이수 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 의사를 피력하면서 이듬해인 1993년 1월 동성개발 대표 양세훈이 제13대 회장에 추대되었다. 양세훈 회장은 1992년 초 일부 도장 관장들의 연명으로 협회 대의원 위촉등과 관련 총회 무효 선언 등의 사태 등을 야기 했던 협회 운영의 불협화음 등의 문제 해결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1994년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을 협회 위촉 임원에서 분리 독립조항으로 정상화 시키고 대의원을 종전 15인 이상에서 21인 이상 30인 이내로 하는 등 대의원 선출 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제주도태권도협회, 2006). 개정을 통한 협회 집행권 강화로 도장과 학교 팀이 두 축으로 분리 갈등의 조짐을 보이던 상황을 잠식시켰다.

이해 5월 지난해 창립한 제주도초등학교태권도연맹이 회장기 타기 전도초등학교 태권도대회를 창설하여 매년 개최를 통해 유소년 인재 발굴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달 서울 88체육관에서 벌어진 제14회 어린이 태권왕 뽑기 전국초등학교 태권도대회에서 서귀중앙교가 단체 종합우승을 차지했으며 이창운은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7월에는 제주도 태권도선수단이 몽골 울란바트로를 방문하여 한국(제주)·몽골 친선 교류대회 개최 및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으며, 8월 2일에는 제주·몽

골 태권도협회간 친선교류 협정서를 교환하였다. 이후 몽골과의 상호교차 교류는 1997년까지 5년간 지속 되었다(제주도태권도협회, 2006).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몽골선수들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교류였기 때문에 협회 발전에는 도움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안영익, 2002).

1994년 1월 몽골 태권도선수단이 제주를 방문하였다. 작 홀란트를 단장으로 한 몽골선수단은 14일까지 제주에 머물면서 제주도선수들과 합동훈련과 친선대회를 가졌으며 기관·단체 등을 방문하는 등 민간 외교활동도 펼쳤다(제주도태권도협회, 2006).

3월에는 제주한라대학에 생활체육과가 신설됐으며, 5월 태권도 선수출신인 최철영 교수의 노력으로 제주한라대학 태권도부를 창단하였다. 선수층은 대부분 도내 2진 선수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전국춘계종별대회에 출전하여 다수의 메달을 획득하였다(안영익, 2002). 하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부원과 전담코치의 부재로 결국 도내 대학팀의 부흥을 일으키지 못하고 해체되었다.

1995년 3월 남녕고등학교에 체육학급이 개설되어 태권도부가 창단 되었다. 제주도에서 3년 동안 연차적으로 약 12억원이 지원되면서 합숙시설과 훈련시설을 갖추어 개설되었는데(제주도체육회, 2001), 이때부터 태권도 우수선수들이 남녕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1996년 1월 양세훈 회장이 도의원 출마 등 일신상의 이유로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사임하자 협회 부회장으로 있던 고우방 동아기업사 대표를 제14대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1월 10일 제주도 태권도선수단 10명이 독일로 떠났다. 제주도선수단은 2월 5일까지 독일 등 유럽 7개국과 태권도 교류대회를 가졌다. 이해 8월 20일에는 독일 태권도 선수 17명이 제주를 답방하기도 하였다.

3월에는 남녕고등학교에 이어 제주공업고등학교(현재 영주고)에 태권도선수출신인 한용식 교사가 부임하여 태권도부를 창단 하였다. 이후 선수출신인 강명덕 교사의 부임으로 활성화되면서 도내 고교팀의 부흥을 일으켰다. 태권도

선수 출신 교수인 유상택의 노력으로 제주관광대학에도 관광레저스포츠학과가 신설되어 태권도 선수들을 영입했다(안영익, 2002). 이후 3년 동안 전도태권도 대회에서 상위 입상하였으나 고교팀과는 달리 선수 수급이 어려운 관계로 활동은 미미하였다. 이처럼 태권도선수 출신의 노력으로 인해 각계각층에서 태권도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4월에는 서울에서 벌어진 제1회 세계주니어 태권도선수권선발대회에서 남주고 김신규가 라이트급에서 우승하며 주니어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 이후 김신규는 같은 해 6월 스페인 바로셀로나 팔라치오에서 열린 제1회 세계주니어 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남자부 라이트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12월에는 제주도태권도협회 상임부회장을 지낸 좌봉택이 제주도문화상 체육부분을 수상하며 상금으로 받은 전액(삼백만원)을 제주도태권도협회(이백만원)와 유단자회(일백만원)에 기탁하기도 하였다.

1997년 1월 고우방 회장은 전임 임기 1년을 마치고 제15대 회장으로 다시 추대되었으며,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상임이사 제도를 폐지하고 ‘기술심의회’ 제도를 도입하는 대대적인 ‘규약개정’(제주도태권도협회 규약 1997)을 통과시켜 협회를 기술심의회 위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대한태권도협회의 기술심의회 제도를 그대로 도입함으로써 기술심의회 임원이 너무 비대해 제주도태권도협회 실정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안영익, 2002).

2월에는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심판강습회에서는 전국에서 285명의 심판원들이 참가했고 6월에는 제32회 대통령기단체대항 태권도대회를 유치하여 1998년 전국체전을 대비한 경기력 향상과 태권도인구 저변확대 그리고 우수심판진 배출 및 경기 운영 노하우 등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6월에는 멕시코 아카폴라에서 치러진 멕시코 오픈 국제태권도대회에는 남녕고등학교 선수단 12명이 출전, 금 4개와 은·동 각 1개씩 6개의 메달을 획득하였다. 이어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6회 베트남 국제 오픈 태권도대회에서는 제주한라대학이 참가, 동메달 2개를 차지하며 국

내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1998년 1월에는 제주도청 남자부와 제주시청 여자부 실업팀이 창단됐으며 4월에는 제주도태권도협회 전무이사를 지낸 양광호가 아시아태권도연맹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6월에는 독일 신텔핑겐에서 열린 1998년도 월드컵 태권도 선수권대회에 고우방 제주도태권도협회장이 한국선수단 단장으로 참가, 남자부 우승과 여자부 준우승의 성과를 거둔다. 도내 실업팀 창단과 임원들의 대외 활동을 통해 발전의 초석을 점차 다져나갔다.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체육관에서 제79회 전국체육대회를 처음 치루게 되었다.

1999년도에는 훈련 체계 정비를 목적으로 기술심의위원회 규정이 개정된다. 사업분과위원회, 국제분과위원회, 경연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 위원회를 신설하고 제도분과위원회 2개 분과 신설, 무도발전위원회 1개 분과 추가 신설되었다(제주도태권도협회, 2006). 또한 이사보선을 통하여 이사의 수를 보장하며 협회의 내실 강화와 전문화 그리고 체계화가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2월 24일 제주도태권도협회는 제주도와 협의를 갖고 2001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유치신청으로 치열한 유치경쟁에 뛰어들며 첫 국제시합유치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다.

3월에는 탐라대학교 태권도학과가 신설되어 전담코치를 두고 태권도부를 육성하기 시작했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 별다른 성적 없이 명맥만 유지하다 결국 해체된다. 또한 국민생활체육 제주도태권도연합회 초대 신관홍 회장 취임식이 열렸으며 이해 11월 21일 제1회 국민생활체육 제주도태권도연합회장기 품새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당시 제주태권도가 겨루기 대회를 넘어 품새 대회 개최로 품새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6월에는 캐나다 애드먼튼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연맹 총회에서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인 끝에 제15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겸 제7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지로 제주가 선정되었다. 7월 31일부터 8월 2일에는 미국 텍사스 태권도협회 일행 13명이 제주도태권도협회를 방문하며(제주도태권도협회,

2006) 국제교류의 범위를 넓혀 가는 등 제주 태권도가 세계무대로의 도약을 준비하였다.

2000년 1월에는 중국 산둥성체육위원회와 체육교류 협정을 체결하며 지도자를 파견하는 등 체육교류를 하였다. 5월 3일부터 12일에는 한라체육관에서 제 27회 한국중·고등학교 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가 열려 제주여고와 오현중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8월에는 제주도태권도협회 고우방 회장 등 일행 3명이 미국 버지니아주 태권도협회를 방문했으며, 8일에는 교류협정도 체결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벌였다.

2001년 1월에는 제주도태권도협회 고우방 회장이 재 선임됐으며, 4월 14일에는 도장 활성화 방안을 위한 체육관장 간담회가 실시되었다. 5월 30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개막된 2001년도 월드컵 태권도대회에 참가한 양창일은 남자 플라이급에서 우승하였다. 6월 22일에는 생활체육 제주도태권도연합회가 개최한 제1회 제주국제 생활체육 태권도대회가 한라체육관에서 개막되었다. 제1회 대회에는 12개국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6일까지 5일간 열렸다. 이는 제주 태권도가 엘리트체육 육성에 이어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태권도의 다양화와 대중화를 시도한 대회라 하겠다. 8월에는 대만 창화에서 벌어진 제1회 아시아청소년태권도대회에서 한찬석 선수가 플라이급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성인에 이어 청소년 국가대표까지 배출에 성공한다. 9월에는 제주대표 태권도 시범단을 창단하였다. 시범단원은 106명으로 구성됐고 감독은 이동희 화랑체육관관장이 맡으며 태권도 시범을 통한 태권도 보급에 나섰다.

11월 1일부터 7일간 개최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는 90개국에서 선수 1천 66명이 참가하면서 역대 최다 선수단 참가를 기록하였으며, 도내 체육관 관장과 사범, 그리고 자원 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한국선수단은 남·여 종합우승을 차지하였다. 제주도태권도협회는 대회에 앞서 10월 20일 한라체육관에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다

집 경의 대회를 개최, 대회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또 김창기 도협회 상임부회장은 대한민국 여자대표팀 감독으로 참가, 종합우승을 차지함으로써 이듬해 12월 체육훈장 백마장을 수상하기도 하였다(제주도태권도협회, 2006).

2002년 9월에는 고우방 전제주도태권도협회 회장이 국가대표 태권도시범단 단장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10월에는 제4회 세계주니어 태권도선수권대회에 제주공고(영주고) 교사 한용식이 코치로 선임되어 그리스로 파견되기도 하였다. 11월 9일에는 제 83회 전국체육대회가 제주에서 사상 2번째로 개막되었다.

발전기에는 도내에 도장이 늘어나면서 태권도 저변이 확대되었고, 제주도청·제주시청 태권도부 창단과 함께 도내 대학과 고등학교에 태권도부가 창설되었다. 새롭게 탄생된 제주도초등학교태권도연맹이 전도초등학교대회를 창설했으며, 제주시장기 대회가 신설되기도 하였다. 1998년에는 사상 처음 제주에서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되면서 많은 우수 선수들을 육성하게 됐으며, 2002년에는 2번째 전국체전을 유치해 경기력 향상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또한 제주태권도는 해외교류 사업에도 물꼬를 터 세계로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93년 제주도태권도협회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트로에서 몽골협회와 친선교류 협약서를 작성하며 본격적인 교류 사업을 펼쳤다. 몽골 이외 유럽·중국·미국과도 친선 교류 사업을 전개했으며, 각종 국제 대회에도 참가하는 등 활동 범위를 넓혀 갔다. 특히 1999년에는 세계태권도대회 유치에 성공하여, 2001년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하였다. 박경숙·고대휴·한찬석 등 우수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세계 규모대회에서 입상하는 등의 활약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발전기의 제주태권도는 외교력과 경기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며 국제화와 세계화의 문턱에 바짝 다가선 시기라 하겠다.

4)전환기(2003~2004)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제주태권도는 집행부가 교체되며 번성에 이은 위기

를 맞는다.

2001년 제15회 세계태권도대회를 앞둔 제주태권도협회는 조기 집행부 구성을 위해 2000년 12월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회장 선출과 관련 무기명 투표까지 가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하였다. 하지만 개표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단일 후보 추대 안을 통과 시켜 고우방 회장을 재추대하면서부터 내홍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후 세계태권도협회 개최 후 협회 운영에 다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일어났다. 2002년 1월 12일 개최된 협회 이사회에서 집행부 임원 전원 사퇴 발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세계태권도대회를 개최하면서 한국 출전 선수 가운데 제주출신 선수의 부재와 제주에서 치르면서 실제 업무를 운영하고 행사를 분담하는 부분에서도 협회의 특정 인물만 움직였다고 주장하면서 집행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안전을 제기해 정식 안전 상정 여부가 표결에 붙여졌고, 표결 결과 21명의 참석이사 중 13명이 찬성 의견을 표시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회장 직권으로 이사회 안전 상정이 거부된 가운데 2002년 1월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집행부 임원 재신임 안이 상정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안전 표결 결과 재신임 찬성 11표 반대 10표로 재신임 찬성이 가결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협회가 이 시기에 협회 중심의 태권도 활동을 주도하여 나가기 위해 기간 조직으로 활동할 체육관 관장에 대하여 그 의사를 협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 공문에 의하면 “연합회 임원은 협회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연합회에 참여하는 체육관 협회의 기간 조직에서 제외시키고, 도장 등록 취소, 협회가 실시하는 대의원 총회·심사·대회·연수회 등의 행사에 참여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연합회에 가입된 해당 체육관 관장들과 연합회의 반발 그리고 도내 대학 팀에서 각종 대회 불참 등을 선언 하면서 또 다른 갈등이 일기도 했지만 2002년 제83회 전국체육대회 및 2003년 제3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제주 개최에 따른 체전 준비 체계로 전환이 되면서 이와 같은 갈등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제주도태권도협회, 2006).

제83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금메달 4개, 은메달과 동메달 각 1개를 기록했으며, 제3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금메달과 은메달 각 1개, 동메달 6개를 획득하였다. 1998년 제79회 전국체육대회와 1999년 제2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제주 개최 당시와 비교해 메달획득과 종합 순위에서 크게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 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문제들이 다시 거론이 되었고 회장이 사임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결국 2004년도 정기 총회 개최 무산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른 제주도태권도협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이 2004년 1월 31일에 채택되면서 제주도체육회 이사회 서면결의에 의하여 2004년 2월 3일 제주도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되었다. 관리위원회 체제하에서 협회는 제31회 한국중·고연맹회장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기울여 졌으며, 관리단체로 지정된 후 5개월만인 2004년 7월 홍성인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하고 집행부 임원이 구성되면서 관리 단체 지정이 해제되었다.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함으로써 연초부터 파행을 겪었던 협회 운영을 정상화 시켰다(제주도태권도협회, 2006).

12월에 열린 이사회에서는 제주에서 상시개최가 가능한 전국규모대회 창설이 승인되면서 정상화 이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였다.

전환기에는 성장가도를 이어온 제주태권도가 상호간의 갈등과 경기력 저하의 문제로 제주도태권도협회장이 사임하는 파행을 맞으며 제주도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된다. 이후 관리위원회 체제하에 제31회 한국중·고연맹회장기를 개최하는 등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홍성인이 회장으로 추대되고 집행부 임원이 새롭게 구성된다. 제주태권도는 안정화의 일환으로 제주도에 상시개최가 가능한 전국규모대회창설사업을 기획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전환기의 제주태권도는 위기를 기회로 극복한 시기라 하겠다.

5)도약기(2005~2014)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태권도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발전의 정점

을 찍은 시기라 하겠다.

2005년 3월 김영하 제주도태권도협회 고문은 국기원의 고단자 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다. 5년째 고단자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제주태권도의 위상을 높였다.

5월에는 아라중은 182개교가 출전한 32회 한국 중.고등학교태권도연맹회장기대회에서 창단 3년 만에 종합우승을 차지, 중고연맹기태권도대회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하며 제주 중학부 사상 첫 종합우승을 일구었다. 이는 협회와 선수출신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투자로 이뤄낸 결과라 하겠다.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오픈국제태권도대회에 협회의 노력으로 남자부에 제주도선수단이 출전해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였다. 이를 통해 제주선수단의 국제경기에 대한 경험을 쌓기도 하였다.

8월 16일 터키 이즈미르에서 열린 유니버시아드 태권도대회에서 제주대학교 한찬석 선수가 편급에 출전하여 동메달을 획득하며 제주 태권도사상 유니버시아드 첫 메달의 주인공이 되었다.

한편 제주도태권도협회는 제주도가 2005년 1월 27일 정부로부터 평화의 섬으로 지정 선포된 것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전국대회 상설화를 계획하고 대회 창설에 들어갔다. 제주도 태권도협회는 이해 5월 제주도와 대회 창설에 따른 협의를 한 뒤 7월 14일 대한태권도협회에 ‘제주평화기 전국태권도대회’ 창설, 제주에서 상설 개최할 수 있도록 승인 요청하였다.

제주도태권도협회는 2005년 11월 7일 대한태권도협회 제2차 이사회에서 대회 창설의 건이 승인됨에 따라 11월 대회준비 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대회준비 업무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 처음 상설 개최되는 ‘세계평화의 섬 선포 기념 제1회 제주평화기 전국태권도대회’가 2006년 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국에서 321개팀 선수 2,24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제주평화기 전국태권도대회는 대한태권도협회와 KCTV제주방송이 공동주최

하고 제주도태권도협회의 주관으로 남녀 중·고교 경기가 치러졌지만 평화이념을 기념한 대회에 걸맞게 남과 북 또는 전국대회규모를 뛰어넘어 국제오픈대회로의 방향성 제시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2006년 5월 박혜미는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제9회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여자부 라이트급에 출전,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8월에는 제36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향태권도대회에서 제주도청 여자 태권도부가 창단 이래 금 2개와 동 2개를 획득하며 첫 전국대회 종합 준우승을 일궈냈다. 이는 제주여자태권도의 경기력을 확인시켰다.

같은 해 8월에는 제주태권도협회가 제주 태권도의 지난 50년의 발자취와 발전상을 집대성한 ‘제주태권도 50년사’를 발간하였다. 이는 대한태권도협회 및 타 시도를 통틀어 유래가 없는 태권도 역사서로 후세들에 남길 값진 역사적 자료로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10월에는 제주도태권도장연합회가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하였다. 제주도태권도장연합회는 제주태권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태권도인의 친목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6월에는 국민생활체육 서귀포시태권도연합회가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하였다. 국민생활체육 서귀포시태권도연합회는 서귀포 지역 태권도 동호인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008년 7월에는 러시아 야쿠츠크에서 열린 제4회 아시아유소년 국제태권도경기대회에서 이나래 선수가 편급우승에 이어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009 11월에는 이란에서 열린 제5회 아시아청소년 태권도대회에서 라이트헤비급에 이윤석 선수가 출전해 우승하였다. 연이은 유소년 국가대표 배출은 제주태권도의 영재육성의 노력을 결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이에 발맞춰 2010년 1월에는 전국 태권도 꿈나무들의 경기력 향상과 태권도저변 확대를 위한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 전국태권도대회’가 열렸다. 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 전국태권도대회조직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초등학교태권도연맹 주최, 주관으로 전국 초등학교에서 1158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 대회는 저학년부(1, 2학년), 중학년부(3, 4학년), 고학년부(5, 6학년)로 나눠 겨루기, 품새, 태권체조부문의 경기를 치러졌다. 이는 제주도 태권도 보급과 유소년 태권도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2011년 8월에는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린 제26회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김선욱 선수가 라이트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제주도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2012년 2월에는 김창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부회장은 1998년 제79회 전국체육대회의 종합 준우승과 2001년 제15회 제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 및 개최한 공로로 제58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공로부문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같은 해 12월 2012 한·일 태권도 국제 교류전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태권도협회, 국민생활체육 제주시태권도연합회, 일본 나고야UTC태권도연합회, 오까자끼태권도연합회 주최·주관으로 일본 나고야시립체육센터에서 열렸다.

2013년 7월에는 불가리아 소피아 국립스포츠아카데미에서 열린 2013 소피아 농아인올림픽에 출전한 제주도장애인체육회 소속 오원중 선수가 은메달, 최제윤 선수가 3관왕을 차지하였다. 특히 최제윤 선수는 여자 개인전 품새, 2인조 패어 그리고 단체전 모두 석권해 3개의 금메달을 획득한다. 이는 제주장애인태권도 분야에서도 가능성 보여준 대회가 되었다.

2014년 8월에는 제주도청 남자 일반부 태권도 팀이 제49회 대통령기대회에서 종합 준우승에 이어 9월 열린 국방부장관기대회에서 창단 첫 종합우승을 차지하였다. 같은 해 역대 3번째 제주에서 열리는 제9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제주도선수단은 금메달 6개, 은메달 2개, 동메달 7개로 총 메달 15개를 획득하며 종합우승을 달성한다. 제주태권도 60년 사상 처음으로 전국체육대회에 종합우승으로 경기력의 정점을 찍는다. 하지만 메달이 실업부와 대학부에 치중

되면서 연계육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도약기에는 제주도내 중학교팀의 선전과 성인 국가대표 뿐만 아니라 유소년부, 청소년부, 대학부 그리고 장애인국가대표까지 배출 및 상위 입상시키며 세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 제주평화기 전국태권도대회 유치에 성공했으며, ‘제주태권도 50년사’를 편찬해 내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제주에서 역대 3번째 개최된 제9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태권도가 금 6, 은 2, 동 7개로 총 15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사상 처음으로 타 시도를 따돌리고 종합우승을 이룩하였다.

결과적으로 도약기의 제주태권도는 협회의 경쟁력과 내실강화에 맞맞춰 정점의 경기력을 발휘한 시기라 하겠다.

3. 제주태권도 경기대회 출전사

제주태권도협회는 1963년 2월 10일 제주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로 가입 승인을 받았다. 아울러 대한태권도협회는 2월23일 대한체육회에 27번째 가맹경기단체로 가입하며 태권도는 급속도로 경기화 된다. 이에 제주태권도 선수단은 국가대표선발전을 통해 각종 국제경기대회를 비롯한 전국체육대회인 국내경기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대회 규모 및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국제대회와 시도별 경기력을 비교할 수 있는 전국체육대회에 초점을 두어 논하고자 하였다.

1)국제경기대회

전 세계의 각 국가에서는 매년 수없이 많은 태권도국제경기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국가대항으로 각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로, 대회 규모 및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국제대회에 초점을 두어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 동아시아선수권 그리고 월드컵대회로 축약하여 논하고자 한다.

제주태권도는 1982년부터 세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 동아시아선수권 그리고 월드컵대회까지 수많은 국가대표선수를 배출해내었다. 제주도가 역대 배출해낸 국가대표명단은 다음과 같다.

표-1 국제경기대회

년도	대 회	이 름	체 급	성 적	비 고
1982	아시아선수권	장승화	헤비급	1위	
1983	세계선수권	장승화	헤비급	1위	
1989	월드컵	진정우	웰터급	1위	
		박경숙	페더급	3위	
1990	아시아선수권	진정우	웰터급	1위	
1993	세계선수권대회	박경숙	라이트급	2위	
1995	세계선수권대회	박경숙	라이트급	1위	

1999	세계선수권	고대휴	밴텀급	1위	
2000	월드컵	고대휴	밴텀급	1위	
2001	월드컵	양창일	플라이급	1위	
2002	월드컵	고대휴	밴텀급	1위	
	아시아선수권	김동언	페더급	3위	
2006	월드컵	장정윤	헤비급	2위	제주도청
2007	세계선수권	박혜미	라이트급	2위	
2008	아시아선수권	박혜미	라이트급	1위	
		장정윤	헤비급	3위	제주도청
2009	동아시아선수권	이슬기	핀급	3위	제주도청
	세계선수권	정영한	미들급	예선탈락	제주도청
2010	아시아선수권	함규환	밴텀급	1위	
		장세욱	페더급	2위	
		정영한	미들급	1위	제주도청
	아시안게임	장세욱	페더급	2위	
	월드컵	송문철	단체전	3위	
2011	세계선수권	장세욱	페더급	예선탈락	
2014	월드컵	송문철	단체전	3위	
		장세욱	단체전	3위	
		박혜미	단체전	1위	

(자료출처, 제주도체육회, 2014)

<표-1>을 살펴보면 1982년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5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장승화가 헤비급 우승으로 제주출신 선수로 첫 국제대회 메달을 획득한다. 바로 다음 해인 1983년 10월 23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벌어진 제6회 세계선수권대회 헤비급에서도 장승화가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는 협회 창설이후 20년 만에 제주태권도는 아시아에 이어 세계 정상에 오르는 급성장을 보여주었다. 이는 제주태권도인과 제주도민에게 자긍심을 일깨워주는 한편 태권도저변확대에도 많은 영향을 가져왔다.

1989년 7월 서독에서 열린 제3회 월드컵게임에 진정우·박경숙이 나란히 출전, 2명 모두 입상하였다. 진정우는 남자 웰터급에서 우승, 박경숙은 여자 페더급에서 동메달을 차지하였다. 이는 장승화 이후 6년이 걸린 것으로 미루어 보면 첫 국가대표인 장승화가 유망주였던 진정우·박경숙에게 자신감을 고취

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로 볼 수 있겠다.

1990년 5월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상무소속 진정우가 웰터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2년 연속으로 국제대회 성적을 올리게 되었다.

1993년에는 여자선수 최초로 박경숙 선수가 제4회 세계여자선수권대회에서 라이트급 준우승을, 1995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5회 세계여자선수권대회에서는 라이트급에서 우승하면서 남자부에 이어 여자부에서도 세계챔피언을 배출해 낸다.

1999년 제14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선 고대휴가 밴텀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2000년 4월에는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된 2000 월드컵 세계태권도대회에서도 고대휴가 다시 밴텀급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제주출신 두 번째 세계챔피언으로 등극된다. 이는 2001년 제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초점을 맞춰 선수를 집중 육성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 하겠다. 하지만 2001년도 국가대표 최종선발대회에서 부상을 당하며 세계선수권 2연패와 제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선수권대회 제주출신 금메달리스트의 꿈을 접게 된다.

2002년 4월 요르단에서 열린 제15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김동언이 남자 페더급에 동메달을 획득했고, 7월에는 일본 도쿄에서는 열린 2002 월드컵 세계태권도대회에 고대휴가 남자 밴텀급에서 우승을 차지하였다.

2006년 9월에는 제주도청 장정운 선수가 태국 방콕 소재 후아마크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2006 WTF월드컵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2007년 5월 박혜미 선수가 제18회(여자 1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2010년 5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제19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는 제주선수 3명이 출전해 함규환 정영한 선수가 각각 금메달을 장세욱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한국대표단은 3명의 제주연고 선수 외에도 강실 도태권도협회장이 단장을 맡고, 제주도청 태권도부 고대휴 지도

자가 감독을 맡아 제주태권도의 행정력, 지도력, 경기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대회라 하겠다.

하지만 2006년부터 2010까지 배출된 대부분의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는 제주출신이 아닌 타지역 출신의 제주도청 소속 선수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제주출신 선수들의 경기력으로 증명될 수 없지만 제주도청이라는 실업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2009년 정영한 선수와 2011년 장세욱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로 선발은 됐지만 입상하지 못하였다. 이는 선수들의 경기력 문제라기보다 태권도가 세계적으로 보급됨에 있어서 경기력이 상향평준화된 결과라 하겠다.

2014년에는 송문철, 장세욱, 박혜미까지 무려 3명의 제주출신 선수가 2014 태권도월드컵대회에 단체전으로 출전해 남·여 입상에 큰 기여를 하였다.

제주태권도는 역대 국가대표를 다수 배출해 내며 올림픽을 제외한 각종 국제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그 경기력을 증명시켰다.

2) 전국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는 시범종목을 포함한 약 40여개의 체육종목에서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와 해외교포를 대표하는 25,000여명의 선수들이 대한체육회 주최로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이다. 이 대회는 경기를 통하여 겨레의 단결심과 인내력을 기르며, 준법정신을 생활화하고 올바른 승부의 가치관을 깨우치고, 나아가 강인한 체력과 슬기로운 민족의 저력을 배양하여 세계에 국위를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한체육회, 1991).

전국체육대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경쟁하는 시도대항전이다. 시도별, 종목별 경기력의 척도로서 그 당시 제주태권도의 경기력을 확연히 보여준다.

제주태권도 선수단은 전국체육대회에서 태권도가 처음 정식종목으로 치러진

제44회 대회부터 제95회 대회까지 50년 동안 대회에 출전하여 성적을 거두었다. 제주선수단이 역대 전국체육대회 및 소년체육대회에 입상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전국체육대회 입상자 명단

대회	부	이름	체급	메달	비고	
1964 (제45회, 인천)	고기부	진춘배(제주)	밴텀	2위	은1 메달 1개 획득	
1965 (제46회, 광주)	남고부	김창환(제주농고)	핀	1위	금2, 동5 메달 7개 획득	
		양동훈(제주상고)	헤비	1위		
		이송규(서귀농고)	플라이	3위		
		신상은(제주상고)	밴텀	3위		
	고기부	안영근	플라이	3위		
		정건웅	라이트	3위		
좌봉택		웰터	3위			
1966 (제47회, 서울)	남고부	최영배(제주제일고)	핀급	1위	금4, 은1, 동4 메달 9개 획득	
		라종대(오현고)	플라이	1위		
		이동건(제주제일고)	밴텀	3위		
	고기부	서장운	핀	3위		
		정공은	페더	3위		
		정건웅	라이트	2위		
1967 (제48회, 서울)	남중부	박성관	헤비	3위		금1, 은4, 동8 메달 13개 획득
		강달삼(서귀중)	라이트	2위		
		김자선(서귀중)	미들	2위		
	남고부	강화용(서귀중)	헤비	1위		
		최영배(제주제일고)	핀	3위		
		강석관	라이트	3위		
	중기부	강무훈(오현고)	웰터	3위		
		김창환	밴텀	3위		
		이만철	페더	3위		
		진성철	웰터	3위		
		김순경	미들	3위		
		고기부	정건웅	라이트	2위	
			좌봉택	웰터	2위	
박성관	헤비		3위			
1968 (제49회, 서울)	남중부	부영배	플라이	3위	은2, 동7 메달 9개 획득	
		강방익	헤비	3위		

	남고부	최영배(제주제일고)	핀	2위	(종합 5위 172.5점)
		현봉철(제주농고)	페더	3위	
	중기부	이만철	페더	3위	
		강창길	미들	3위	
	고기부	서장운	핀	3위	
		정건웅	라이트	3위	
1969 (제50회, 서울)	남중부	고영수	페더	3위	금2, 동4 메달 6개 획득
		강여익	미들	3위	
	중기부	김창기	밴텀	3위	
		강창길	미들	3위	
	고기부	김창환	밴텀	1위	
		진준배	라이트	1위	
1970 (제51회, 서울)	남중부	강대영(오현중)	플라이	3위	동4 메달 4개 확보 하였으나 선수 단 철수로 수 상거부
		고성도	웰터	3위	
	중기부	최영배	핀	3위	
		이동건	웰터	3위	
1971 (제52회, 서울)	남중부	김창현(효돈중)	플라이	3위	금1, 은3, 동7 메달 11개 획 득
		양성무(서귀중)	헤비	1위	
		엄정호(서귀중)	웰터	3위	
	남고부	강중훈(오현고)	핀	3위	
		박정균(중문원예고)	밴텀	3위	
	중기부	강여익	페더	3위	
		강용기	라이트	2위	
		강방익	미들	2위	
	고기부	최영배	핀	3위	
		김창환	밴텀	2위	
		고복래	미들	3위	
1972 (제53회, 서울)	중기부	이덕부	핀	3위	은1, 동4 메달 5개 획득 -전국소년체전 창설로 중등부 가 빠짐
		강용기	라이트	2위	
	고기부	강여익	밴텀	3위	
		허송	웰터	3위	
		강무훈	미들	3위	
1973 (제54회, 부산)	남고부	오상현(제주제일고)	밴텀	3위	은2, 동3 메달 5개 획득
		양남현(오현고)	라이트	3위	
	중기부	오일호	핀	2위	
	고기부	강용기	페더	2위	
		이동건	라이트	3위	
1974	남고부	허중순(오현고)	핀	3위	동6

(제55회, 서울)	중기부	강민호(남주고)	밴텀	3위	메달 6개 획득
		이계형	페더	3위	
		오상현	밴텀	3위	
	고기부	고영수	밴텀	3위	
		강성울	웰터	3위	
1975 (제56회, 대구)	남고부	허종순(오현고)	핀	3위	금2, 동3 메달 5개 획득
		신진성(오현고)	미들	3위	
	중기부	오행선	미들	3위	
		김완기	밴텀	1위	
		강성울	미들	1위	
1976 (제57회, 부산)	남고부	양동언(남주고)	플라이	3위	금5, 은3, 동5 메달 13개 획득 (서울에 이어 817점으로 종합 2위)
		김용남(남주고)	밴텀	2위	
		김동훈(오현고)	웰터	1위	
		강창효(제주농고)	미들	2위	
	중기부	허종순	핀	1위	
		강민호(제주대)	밴텀	1위	
		강희택	페더	3위	
		정용언	웰터	2위	
		오행선	미들	1위	
	고기부	오성홍	플라이	1위	
		김완기	라이트	3위	
		강성률	미들	3위	
		강화용	헤비	3위	
1977 (제58회, 광주)	남고부	강명덕(남주고)	밴텀	3위	금2, 은1, 동4 메달 7개 획득
		최학기(남주고)	페더	2위	
		최철영(오현고)	라이트	3위	
		장승화(오현고)	헤비	3위	
	중기부	강민호(제주대)	밴텀	1위	
		김동훈(제주대)	웰터	1위	
	고기부	강중식	페더	3위	
1978 (제59회, 인천)	남고부	최철영(오현고)	라이트	1위	금3, 은1, 동2 메달 6개 획득
	중기부	이종찬	라이트	2위	
	고기부	이순익	핀	1위	
		강민호	밴텀	3위	
		이계형	라이트	3위	
		김동훈(제주대)	웰터	1위	
1979 (제60회, 대전)	남고부	김성훈(오현고)	웰터	3위	은2, 동1 메달 3개 획득
	중기부	강문호	핀	2위	
	고기부	장승화(한국체대)	헤비	2위	
1980	남고부	김중욱	플라이	3위	금1, 은3, 동4

(제61회, 전주)	대학부	정성철	페더	3위	메달 8개 획득
		허종순	핀	3위	
		강명덕	밴텀	3위	
		김성훈	웰터	2위	
		이종찬	L미들	1위	
		강창효	L헤비	2위	
	일반부	김완택	핀	2위	
1981 (제62회, 서울)	대학부	허종순(제주대)	핀	2위	은3 메달 3개 획득
		김성훈	웰터	2위	
		강창효	미들	2위	
1982 (제63회, 마산)	남고부	채상만(오현고)	핀	3위	은1, 동3 메달 4개 획득
	대학부	김성훈	L웰터	2위	
		이종찬	미들	3위	
	일반부	유성용	라이트	3위	
1983 (제64회, 인천)	남고부	김명보	L미들	3위	은1, 동2 메달 3개 획득
	대학부	최철영	L미들	2위	
	일반부	장동화	핀	3위	
1984 (제65회, 대구)	남고부	한용식(오현고)	플라이	3위	금1, 은1, 동3 메달 5개 획득
		강성확(남주고)	L미들	3위	
	대학부	윤희섭(제주대)	플라이	3위	
		최원국(제주대)	L헤비	2위	
	일반부	장승화	헤비	1위	
1985 (제66회, 춘천)	남고부	김태형(오현고)	라이트	3위	동2 메달 2개 획득
	대학부	윤희섭(제주대)	플라이	3위	
1986 (제67회, 서울)	남고부	이승도(남주고)	밴텀급	2위	은3, 동3 메달 6개 획득
		고충환(오현고)	페더	2위	
		김태형(오현고)	라이트	3위	
	대학부	최원국(제주대)	미들	2위	
		김완택	플라이	3위	
	일반부	강근혁	페더	3위	
1987 (제68회, 광주)	남고부	강운신(남주고)	라이트	1위	금2, 동2 메달 4개 획득
	대학부	윤희섭(제주대)	페더	1위	
		최원국(제주대)	미들	3위	
	일반부	채상만	핀	3위	
1988 (제69회 분산개최)	남고부	강승수(오현고)	미들	3위	금1, 동4 메달 5개 획득
	대학부	성의천(제주대)	플라이	3위	
		진정우(한국체대)	웰터	3위	
	일반부	채상만(도협회)	핀	1위	
		윤희섭	웰터	3위	
1989	남고부	고병국(남주고)	라이트	3위	금2, 은1, 동3

(제70회, 수원)	대학부	강승수(오현고)	미들	1위	메달 6개 획득
		오병철(한국체대)	라이트	3위	
		김태형(한국체대)	웰터	3위	
		강운신(제주대)	미들	2위	
	일반부	진정우	웰터	1위	
1990 (제71회, 청주)	대학부	정태호(제주대)	밴텀	3위	금1, 동5 메달 6개 획득
		성의천(제주대)	페더	3위	
		오병철(한국체대)	라이트	3위	
		강승수(한국체대)	헤비	3위	
	일반부	최연석(도협회)	라이트	3위	
		진정우(상무)	웰터	1위	
1991 (제72회, 전주)	남고부	김남경(남주고)	플라이	3위	금2, 은1, 동2 메달 5개 획득
	일반부	강동범(상무)	밴텀	2위	
		성의천(상무)	라이트	1위	
		진정우(상무)	웰터	1위	
		최원국(도협회)	헤비	3위	
1992 (제73회, 대구)	일반부	김태형(상무)	웰터급	1위	금1 메달 1개 획득
1993 (제74회, 광주)	대학부	김승윤(제주대)	핀	3위	금1, 은1, 동6 메달 8개 획득
		김남경(제주대)	플라이	3위	
		강동범(제주대)	페더	3위	
		서배홍(제주대)	라이트	2위	
		강승수(한국체대)	헤비	3위	
	일반부	강근배(남군청)	플라이	3위	
		김태형(상무)	웰터	3위	
	여자부 (시범)	박경숙(경희대)	페더	1위	
1994 (제75회, 대전)	남고부	고재필(남주고)	핀	3위	은1, 동4 메달 5개 획득
		이광석(남주고)	플라이	2위	
	일반부	김룡(도협회)	핀	3위	
		강승수(상무)	헤비	3위	
	여자부 (시범)	박경숙(경희대)	라이트	3위	
1995 (제76회, 포항)	남고부	고재필(남주고)	플라이	3위	은1, 동3 메달 4개 획득
		김신규(남주고)	라이트	2위	
	대학부	고대휴(제주대)	밴텀급	3위	
	남일부	강승수(도협회)	헤비	3위	
1996 (제77회, 춘천)	남고부	김현섭(남주고)	플라이	3위	금2, 동2 메달 4개 획득
		이광석(남주고)	웰터	1위	

1997 (제78회, 창원)		고경민(남녕고)	미들	3위	금2, 은2, 동4 메달 8개 획득
	대학부	고대휴(제주대)	밴텀	1위	
	남고부	김동언(남녕고)	페더	1위	
	여고부	이명선(남녕고)	밴텀	3위	
	대학부	이광석(경희대)	웰터	2위	
	남일부	서상훈(도협회)	플라이	3위	
		고대휴(상무)	밴텀	3위	
		강동범(도협회)	페더	2위	
	여일부	조재영(도협회)	페더급	3위	
		이정숙(용인대)	웰터	1위	
1998 (제79회, 제주)	남고부	양창일(남녕고)	밴텀	1위	금3, 은2, 동9 메달 14개 획득 1,902점으로 종합 준우승 차지
		이태경(제주공고)	미들	3위	
	여고부	문은정(한림고)	헤비	3위	
	대학부	이광석(경희대)	웰터	1위	
		윤귀상(고려대)	미들	3위	
	남일부	박종범(도협회)	핀	3위	
		고대휴(상무)	페더	3위	
		양원철(제주도청)	웰터	3위	
		최승길(도협회)	미들	2위	
		강승수(도협회)	헤비	2위	
	여일부	곽정순(제주시청)	핀	3위	
		오미니(상명대)	밴텀	3위	
		강해은(상명대)	라이트	1위	
		김윤경(상명대)	헤비	3위	
1999 (제80회, 인천)	대학부	김정선(경희대)	라이트	1위	금1, 은1, 동1 메달 3개 획득
		이광석(경희대)	웰터	2위	
	여일부	권은경(제주시청)	헤비	3위	
2000 (제81회, 부산)	남고부	함규환(남녕고)	핀	2위	금1, 은2, 동4 메달 7개 획득
		김신정(남녕고)	플라이	3위	
	대학부	고대휴(제주대)	밴텀	1위	
		김정선(경희대)	라이트	2위	
	남일부	김남웅(제주도청)	웰터	3위	
	여일부	전기숙(제주도청)	밴텀	3위	
2001 (제82회, 충남)	여고부	신경아(제주여고)	핀	3위	은3, 동3 메달 6개 획득
	대학부	김정선(경희대)	라이트	2위	
		김승윤(제주도청)	플라이	2위	
	남일부	김남웅(제주도청)	웰터급	3위	
		정동혁(제주도청)	미들	2위	
	여일부	양혜정(한국체대)	라이트	3위	

2002 (제83회, 제주)	남고부	한찬석(제주공고)	핀	3위	금4, 은1, 동1 메달 6개 획득
		김천권(남녕고)	밴텀	1위	
	남일부	고대휴(제주도청)	밴텀	1위	
		김동언(상무)	페더	1위	
	여일부	이광석(가스공사)	라이트	2위	
2003 (제84회, 전북)	남일부	김유진(제주도청)	미들	1위	동2 메달 2개 획득
		오원종(제주도청)	플라이	3위	
2004 (제85회, 충북)	남고부	고대휴(제주도청)	페더	3위	은4, 동6 메달 10개 획득
		강민혁(남녕고)	플라이	3위	
	여고부	박혜미(삼성여고)	밴텀	2위	
		박양배(한국체대)	밴텀	2위	
	대학부	최희중(용인대)	미들	3위	
		오원종(제주도청)	플라이	3위	
		김동언(제주도청)	라이트	2위	
		김남웅(제주도청)	웰터	3위	
		이광석(서귀포시협 회)	미들	3위	
	여일부	김유진(제주도청)	미들	2위	
		전경아(제주도청)	헤비	3위	
2005 (제86회, 울산)	남고부	강기훈(남녕고)	플라이	2위	은4, 동3 메달 7개 획득
		송문철(남녕고)	밴텀	2위	
		이성민(남녕고)	헤비	3위	
	남일부	이기정(제주도청)	핀	2위	
		박양배(상무)	페더	2위	
	여일부	오성숙(제주도청)	핀	3위	
		장정윤(제주도청)	헤비급	3위	
2006 (제87회, 경북)	여고부	오수정(삼성여고)	밴텀	3위	은3, 동3 메달 6개 획득
	남대부	한찬석(제주대)	핀	3위	
		신준식(제주도청)	웰터	2위	
	남일	김동언(제주도청)	라이트	2위	
		오성숙(제주도청)	핀	2위	
	여일	김미현(제주도청)	미들	3위	
2007 (제88회, 광주)	남고부	정창임(남녕고)	라이트	3위	금1, 은3, 동5 메달 9개 획득
		이정기(남녕고)	미들	3위	
		이상희(남녕고)	웰터	2위	
	남대부	강경연(제주대)	웰터	3위	
		한찬석(제주도청)	핀	1위	
	남일부	함규환(제주도청)	밴텀	2위	
		김동언(제주도청)	라이트	3위	

2008 (제89회, 전남)	여고부	오수정(삼성여고)	페더	3위	은3, 동7 메달 10개 획득
	여일부	이슬기(제주도청)	핀	2위	
	남고부	이정기(남녕고)	미들	3위	
	여고부	현유정(중앙여고)	플라이	3위	
	남대부	김선옥(제주대)	라이트	3위	
	남일부	한찬석(제주도청)	핀	2위	
		함규환(제주도청)	밴텀	2위	
		문현준(제주도청)	웰터	3위	
	여일부	이슬기(제주도청)	핀급	3위	
		최영미(탐라대)	페더	3위	
		박혜미(경희대)	라이트	2위	
		장정윤(제주도청)	헤비	3위	
2009 (제90회, 대전)	여고부	현유정(중앙여고)	플라이	2위	금3, 은1, 동2 메달 6개 획득
	남대부	오진석(제주대)	핀	3위	
		송문철(한국체대)	밴텀	1위	
		김선옥(제주대)	페더	1위	
	여일부	이슬기(제주도청)	핀	1위	
2010 (제91회, 경남)		김혜영(탐라대)	라이트	3위	금3, 은4, 동2 메달 9개 획득
	남고부	이윤석(남녕고)	웰터	2위	
	여고부	김수현(중앙여고)	플라이	1위	
		강주연(중앙여고)	미들	3위	
		김선옥(제주대)	라이트	1위	
	남대부	장세욱(용인대)	페더	2위	
		이경훈(동아대)	헤비	2위	
		한찬석(제주도청)	플라이	3위	
	남일부	정영한(제주도청)	미들	2위	
	여일부	이슬기(제주도청)	핀	1위	
2011 (제92회, 경기)	남고부	김훈오(남녕고)	밴텀	2위	금1, 은4, 동1 메달 6개 획득
	여고부	김윤정(중앙여고)	웰터	2위	
	남대부	노동현(제주대)	밴텀	2위	
		이윤석(용인대)	웰터	1위	
	남일부	장창하(제주도청)	웰터	2위	
	여일부	심주연(제주도청)	핀	3위	
2012 (제93회, 대구)	남고부	이준우(남녕고)	웰터	3위	은3, 동8 메달 11개 획득
		김태휘(남녕고)	헤비	3위	
	여고부	김신비(중앙여고)	웰터	2위	
		양승혜(영주고)	헤비	3위	
		이윤석(용인대)	웰터	2위	
	남대부	김재민(전주대)	미들	3위	
		임동민(제주대)	헤비	3위	

	여대부	이주연(제주대)	웰터	3위	
	남일부	이성재(제주도청)	미들	3위	
	여일부	이슬기(제주도청)	핀	3위	
		오세연(제주도청)	페더	2위	
2013 (제94회, 인천)	남대부	양지원(제주대)	라이트	3위	금1, 동5 메달 6개 획득
	여대부	현유정(조선대)	플라이	3위	
	남일부	송문철(제주도청)	밴텀	3위	
		이성재(제주도청)	웰터	3위	
	여일부	강서희(제주도청)	페더	3위	
		박혜미(삼성에스원)	웰터	1위	
2014 (제95회, 제주)	남대부	이상원(제주대)	밴텀	3위	금6, 은2, 동7 메달 15개 획득
		채경진(고신대)	라이트	2위	
	여대부	김소라(제주대)	페더	3위	
		김신비(경희대)	웰터	3위	
		양승혜(조선대)	헤비	3위	
	남일부	송문철(제주도청)	밴텀	1위	
		문영석(제주도청)	페더	3위	
		김선욱(제주협회)	라이트	1위	
		이성재(제주도청)	웰터	1위	
	여일부	최영미(제주도청)	밴텀	1위	
		인소정(제주도청)	페더	3위	
		강서희(제주도청)	라이트	2위	
		박혜미(삼성에스원)	웰터	1위	
		오샘이(제주협회)	미들	3위	
		유아라(제주도청)	헤비	1위	

(자료출처, 제주도체육회, 2014)

표-3 소년체육대회 입상자 명단

대회	부	이름	체급	메달	비고
1972 (제1회, 서울)	중등부	이순익(효돈중)	핀급	2위	은1, 동2 메달 3개 획득
		김일만(오현중)	미들	3위	
		양성무(남주중)	헤비	3위	
1973 (제2회, 대전)	중등부	이승현(효돈중)	플라이	1위	금1, 동1 메달 2개 획득
		이순익(효돈중)	라이트	3위	
1974 (제3회, 서울)	중등부	문병희(서귀중)	플라이	3위	은1, 동2 메달 3개 획득
		문영철(오현중)	페더	3위	
		한주훈(오현중)	웰터	2위	

1975 (제4회, 부산)	중등부	허종오(효돈중)	페더	3위	동1 메달 1개 획득
1976 (제5회, 서울)	중등부	고성진(남주중)	페더	3위	동1 메달 1개 획득
1977 (제6회, 서울)	중등부	문민진(서귀중)	플라이	2위	은1, 동1 메달 2개 획득
		배성룡(서귀중)	라이트	3위	
1978 (제7회, 대구)	중등부	차기만(제주제일중)	플라이	3위	동3 메달 3개 획득
		정환용(서귀중)	라이트	3위	
		김중옥(제주중앙중)	웰터	3위	
1979 (제8회, 충북)	중등부	김효상(남주중)	핀	3위	은1, 동1 메달 2개 획득
		정용환(서귀중)	웰터	2위	
1980 (제9회, 강원)	중등부	이창진(제주중앙중)	플라이	2위	은1 메달 1개 획득
1981 (제10회, 광주)	중등부	홍신식(제주중앙중)	미들	3위	동1 메달 1개 획득
1982 (제11회, 대전)	중등부	고은보(제주중앙중)	플라이	3위	동2 메달 2개 획득
		한용식(제주중앙중)	밴텀	3위	
1983 (제12회, 전북)	중등부	고지형(제주중앙중)	핀	3위	동3 메달 3개 획득
		오병철(서귀중)	플라이	3위	
		진정우(서귀중)	밴텀	3위	
1984 (제13회, 제주)	중등부	성의천(제주중앙중)	핀	3위	금2, 은1, 동3 메달 6개 획득
		강동균(남주중)	플라이	2위	
		오병철(서귀중)	밴텀	1위	
		진정우(서귀중)	페더	1위	
		송상준(제주중앙중)	라이트	3위	
		고영훈(제주중앙중)	헤비	3위	
1985 (제14회, 경북)	중등부	김운중(남주중)	플라이	3위	동1 메달 1개 획득
1986 (제15회, 경남)	중등부	고성권(남주중)	핀	3위	금1, 동2 메달 3개 획득
		임용배(서귀중)	웰터	3위	
		강승수(남주중)	헤비	1위	
1987 (제16회, 부산개최)	중등부	강운만(남주중)	라이트	1위	금1 메달 1개 획득
1988 (제17회)	중등부	이광진(남주중)	웰터	2위	금1, 은1 메달 2개 획득
		권혁훈(남주중)	L미들	1위	
1989	도단위	대회로 개최			

1990	도단위 대회로 개최				
1991	도단위 대회로 개최				
1992 (제21회)	남중부	황용길(남주중)	핀	3위	은1, 동1 메달 2개 획득
		김형중(중문중)	L헤비	2위	
1993 (제22회, 서울)	중등부	강경범(남주중)	밴텀	3위	금1, 은1, 동3 메달 5개 획득
		고재필(서귀중)	페더	3위	
		김정선(서귀중)	라이트	1위	
		김신규(중문중)	L웰터	3위	
		강승철(대정중)	L미들	2위	
1994 (제23회, 광주)	중등부	정명진(대정중)	페더	2위	은1, 동2 메달 3개 획득
		김동언(오현중)	라이트	3위	
		이원희(제주중앙중)	웰터	3위	
1995 (제24회, 대전)	남중부	박태열(서귀중)	밴텀	1위	금1, 동1 메달 2개 획득
		박정민(서귀중)	라이트	3위	
1996 (제25회, 경북)	남중부	고동영(서귀중)	핀	2위	금1, 은1 메달 2개 획득
		박태열(서귀중)	페더	1위	
1997 (제26회, 강원)	남중부	김신정(남주중)	핀	1위	금1, 은2, 동4 메달 7개 획득
		함규환(남주중)	플라이	2위	
		박양배(남주중)	라이트	3위	
		장두상(오현중)	미들	2위	
		박경문(남주중)	헤비	3위	
	여중부	서희정(제주여중)	플라이	3위	
		강미라(성산중)	미들	3위	
1998 (제27회, 경남)	남중부	이영광(남주중)	핀	3위	금1, 은1, 동2 메달 4개 획득
		임창용(남주중)	플라이	2위	
		장두상(오현중)	미들	3위	
	여중부	강미라(신산중)	미들	1위	
1999 (제28회, 제주)	남초부	김정우(위미초)	핀	2위	금3, 은3, 동8 메달 14개 획득
		임창현(구좌초)	플라이	3위	
		송문철(삼양초)	밴텀	3위	
		오영택(위미초)	L미들	3위	
		김경태(제주북초)	헤비	3위	
	남중부	한찬석(조천중)	플라이	1위	
		김천권(조천중)	페더	1위	
		윤달호(귀일중)	라이트	3위	
		김상수(조천중)	헤비	3위	
	여중부	신여진(함덕중)	플라이	2위	
		강진희(표선중)	밴텀	3위	
		송명신(제주여중)	라이트	1위	

2000 (제29회, 인천)	남중부	한효진(함덕중)	L웰터	3위	금1, 동1 메달 2개 획득
		강진하(함덕중)	L미들	2위	
		김형준(귀일중)	웰터	3위	
		장명수(남주중)	L헤비	1위	
2001 (제30회, 부산)	남초부	이승환(삼성초)	플라이	3위	은2, 동2 메달 4개 획득
		현지수(위미초)	웰터	2위	
	남중부	강민혁(제주동중)	라이트	3위	
		고정철(남주중)	L웰터	2위	
2002 (제31회, 충남)	남초부	부지혁(봉개초)	L웰터	2위	금2, 은3, 동1 메달 6개 획득
		문지환(제주북초)	L미들	1위	
		이상희(제주북초)	헤비	1위	
	남중부	임창현(오현중)	페더	2위	
		송문철(제주동중)	라이트	2위	
		조대원(서귀중)	L웰터	3위	
2003 (제32회, 제주)	남초부	장세욱(대정초)	플라이	3위	금1, 은1, 동6 메달 8개 획득
		임현태(예례초)	밴텀	3위	
		이윤석(대정초)	L미들	3위	
	남중부	문지환(아라중)	페더	3위	
		이성민(오현중)	L헤비	1위	
		홍성중(오현중)	헤비	3위	
	여중부	고예슬(효돈중)	라이트	3위	
		김보연(남원중)	L헤비	2위	
2004 (제33회, 전북)	남초부	김종석(대정초)	핀	3위	금1, 은2, 동3 메달 6개 획득
		이준석(대정초)	웰터	2위	
		강윤희(효돈초)	L미들	3위	
		이윤석(대정초)	L헤비	1위	
	남중부	이상희(아라중)	L헤비	2위	
	여중부	민은희(아라중)	L미들	3위	
2005 (제34회, 충북)	남초부	김훈오(동화초)	페더	2위	금3, 은2, 동3 메달 8개 획득
		최성광(보성초)	웰터	1위	
		고용건(중앙초)	L미들	1위	
	남중부	장세욱(아라중)	핀	3위	
		김용희(제주중)	라이트	3위	
		이윤석(아라중)	미들	3위	
		이상희(아라중)	L헤비	1위	
		이정기(아라중)	헤비	2위	
2006 (제35회, 울산)	남중부	박제영(오현중)	핀급	3위	금1, 은2, 동2 메달 5개 획득
		임용호(아라중)	페더	2위	
		양병찬(효돈중)	L미들	3위	
		이윤석(아라중)	L헤비	1위	

	여중부	김아현(신성여중)	밴텀	2위	
2007 (제36회, 경북)	남중부	최성광(아라중)	웰터	3위	금1, 동5 메달 6개 획득
		홍슬기(아라중)	L웰터	3위	
		이윤석(아라중)	헤비	1위	
	여중부	현유정(신성여중)	밴텀	3위	
		문서라(대정중)	페더	3위	
		우은지(신성여중)	웰터	3위	
2008 (제37회, 광주)	남초부	박은배(사계초)	핀	1위	금1, 은3 메달 4개 획득
		강규준(한림초)	헤비	2위	
	남중부	김훈오(아라중)	페더	2위	
		고용건(아라중)	미들	2위	
2009 (제38회, 전남)	남초부	김민수(애월초)	플라이	3위	금1, 동4 메달 5개 획득
		강재현(삼성초)	웰터	3위	
		양효준(동홍초)	헤비	3위	
	남중부	최재혁(아라중)	L미들	1위	
		유용진(대정중)	미들	3위	
2010 (제39회, 대전)	남초부	강호진(외도초)	핀	2위	은1, 동3 메달 4개 획득
	남중부	채경진(아라중)	웰터	3위	
	여중부	양승혜(신엄중)	헤비	3위	
2011 (제40회, 경남)	남중부	박은배(오현중)	핀	3위	동1 메달 1개 획득
2012 (제41회, 경기)	남중부	임성민(아라중)	라이트	3위	은1, 동1 메달 2개 획득
		이홍석(대정중)	L미들	2위	
2013 (제42회, 대구)	남초부	박수연(한림초)	미들	1위	금3, 은1, 동1 메달 5개 획득
		정지원(한림초)	L헤비	3위	
	남중부	윤희신(한림중)	핀	1위	
		이상민(한림중)	미들	1위	
		고경현(한림중)	헤비	2위	
2014 (제43회, 인천)	남초부	안혜성(동광초)	L웰터	3위	은1, 동3 메달 4개 획득
		허재원(토평초)	L미들	2위	
	남중부	현지훈(동광초)	헤비	3위	
		임형택(한림중)	핀	3위	

(자료출처, 제주도체육회, 2014)

위의 <표-2>와 <표-3>을 보면 제주선수단은 전국체육대회 및 소년체육대회에서 첫 출전한 제44회 전국체육대회를 제외한 모든 대회에서 메달획득에 성공하였다.

1964년 경기규칙이 개정되면서 단체전과 함께 핀급부터 헤비급까지 중기부(1~2단)와 고기부(3단 이상자) 8체급의 개인전 경기가 실시되면서 새로운 전환을 맞는다. 태권도가 경기위주의 스포츠로 변화 되면서 창무관에서는 문무용, 고향봉, 좌봉택, 정건웅 등이 앞장서서 선수 세대교체를 하였다. 선수 발굴을 위해 수련생들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각 지관 심사에 데리고 다니면서 겨루기를 시켜 경기 기능과 담력을 키우기도 하였다. 이들은 다음해 유단자가 된 신상은·김창환과 그들보다 약간 늦게 유단자가 된 나중대·이동건·최영배 등이다(안영익, 2002). 결과적으로 제4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창무관 문무용 사범의 지도로 일반 고기부 뎀텀급에 출전한 진춘배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하여 제주태권도 역사에 첫 메달로 기록된다.

1965년 태권도가 경기화 되면서 시·도간 경쟁이 심화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강화훈련이 필요하게 된다. 창무관에서는 우수선수 발굴 육성을 위해 여름 방학 중 20일간 각 지관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해수욕장 근처 초등학교를 빌려 하계모서수련대회라는 합숙훈련을 매년 실시하게 되었고 제46회 전남 광주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제주농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창무관 출신 김창환 선수와 제주상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도관 출신 양동훈 선수가 제주태권도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겨주었다(제주도태권도협회, 2006). 김창환과 양동훈의 금메달은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경기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즉 이들을 경기 태권도로 빠르게 적응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

1967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48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중등부 경기가 채택되었다. 제주협회에서는 30명이 출전하여 금 1, 은 4, 동 8, 모두 13개의 메달을 획득하였다. 이때 입상자들 중 좌봉택, 정건웅등은 협회 임원으로, 강화룡·최영배·김순경 등은 도장 교사로, 김창환은 중·고등학교 교사로 선수들을 지도하여 제주태권의 전통을 이어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안영익, 2002). 당시 중등부에서 모두 서귀중학교 선수들이 입상했는데 그 배경에는 문무용 사범과 중등학교 교사인 박성관 사범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제주태권도 1세대로써 제주태권도를 발전시키려면 기존 선수들로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서귀포지역의 선수수급으로까지 이어졌던 것이다. 이후 제주

시와의 선의의 경쟁은 제주도선수들의 경기력도 향상되었으며, 저변확대에도 기여하였다.

1968년 7월 31일 서울에서 개최된 전국학생태권도대회에 참가한 제주도 선수단은 중·고등부에서 금메달 4개를 획득하여 종합우승을 하였다. 당시 전국대회에 출전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제주태권도발전에 온 정열을 바치고 있던 지도자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출진비를 마련하여 이 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것이다(제주도태권도협회, 2006). 이는 당시 체육부 고영진기자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증언은 다음과 같다.

『열의야 열의 태권도가 타시도보다도 앞설 수 있었던 것은 선배들의 열의야 정건웅씨 같은 분들 이분들이 초창기에 엄청 노력했던 사람들이야 태권도를 떠나서 다른 걸 해보지 않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러므로 인해서 전국체전 소년체전 대비해서 계속 훈련도 하고 말이야 지금은 순회코치 같은 걸로 월급주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태권도가 좋아서 후배들 가르치고 집에서 쌀된장 가져와서 합숙한 사람이야...』 (고영진과의 면담, 2013년 8월 19일)

1969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50회 전국체육대회 제주도태권도선수단은 금 2, 동 4, 모두 6개의 메달 밖에 획득하지 못했으며 전년도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금메달이 없었다. 이러한 침체현상을 보이기 시작한테는 각 부별 8체급인데 선수들이 없어서 체급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었으며, 선수층이 빈약하여 세대교체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70년 제51회 서울 전국체전에서는 제주 최초 노메달을 기록하게 되었다. 잇따른 편파판정에 불복하여, 대한체육회 소청위원회에 공정한 판정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선수단을 중도 철수하였다. 4개 체급의 동메달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선수단 철수로 인해 메달을 수상하지 못하는 불상사로 이

어졌다(제주도체육회 2001, 안영익 2002, 제주도태권도협회 2006). 제51회 전국 체전은 제주태권도가 유일하게 메달을 기록하지 못한 대회가 되었다. 바로 이듬해인 1971년 제52회 서울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금 1, 은 3, 동 7개 등 총 11개의 메달을 획득하면서 정황상 전년도 심판판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반증해주는 대회가 되었다.

1972년 제53회 전국체전에서는 은 1, 동 4개 등 총 5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저조한 성적을 냈는데 이 배경에는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창설되면서 중등부가 전국체육대회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1976년 제57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모두 13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 2위를 하며, 제주도태권도 역사 이래 가장 좋은 성적을 올렸다.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요인으로서는 제주대학교 체육교육과에 태권도선수들이 재학하여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었으며, 인천체육전문학교 태권도부 주장이었던 오행선 선수의 영향력도 있었다(안영익, 2002). 이는 당시 남고부 웰터급에서 우승을 차지한 김동훈의 증언에서도 알 수 있다. 증언은 다음과 같다.

『1976년 전국체전때 최초로 제주도 선수들이 육지 대학에 가게 되었어. 오행선, 오용진, 강광윤, 김완기 그런 분들이 인천체대로 대거 입학하게 되었지 그러고 다시 체전시즌이 되어 제주도로 합숙을 오면 육지발차기가 보이는 거야 그 당시만 해도 제주도발차기만 가지고 시합을 뛰었지 우리에게 많은 동기유발이 되었어. 인천체전하면 그 이름만 봐도 끝나는 거야 발차기도 우리와는 다르고 그땐 스텝이 어디 있어 스텝 밟고 겨루기 할 때 우리를 뺑뺑 때리고 그랬지.』 (김동훈과의 면담, 2013년 4월 3일)

1984년 제주에서 열린 제1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남중부 8체급 경기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 등 6개의 메달을 획득하면서 종합2위에 입

상하는 좋은 성적을 기록하였다. 이는 체전대비 체계로 협회 운영을 전환하였으며, 강중식 김동훈 등을 중앙 심판 보수 교육에 참가시켜 체전에 대비하도록 했던 영향이 컸으나 무엇보다 일찌감치 제13회 전국소년체전 대비 강화훈련을 실시한 노력과 투자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1992년 제21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폐지 된지 4년 만에 부활됨으로 인해 제주도대표 선수들을 선발하여 태권도회관에서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중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훈련을 힘들어한 선수에 의한 방화로 밝혀졌다. 집행부 임원들 다수가 퇴진하는 곤욕을 치러 제21회 전국소년체전에서는 은·동메달 각 1개 획득과, 제73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금 1개만을 획득하데 그치는 부진함을 보여주었다.

1993년 서울에서 열린 제22회 소년체육대회에서 금1, 은1, 동 3로 총 5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등 침체되었던 제주 유소년 태권도가 다시 전국무대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1998년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체육관에서 벌어진 제7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제주태권도는 금 3개·은 2개·동 9개 등 14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1976년 제57회 부산대회 이후 다시 전국체전 종목 종합 2위 성적을 기록한다(제주도태권도협회, 2006). 종합 2위를 하였으나 14명의 입상자 중 8명이 타 지역 출신 입상자였다. 제주출신 선수들의 메달획득 수를 타 시·도에서 개최하였을 때와 비교하면 결과는 크게 나아진 것이 아니었다.

결국 제주도협회에서는 장기적인 계획 없이 대회 때마다 타 시·도에서 급하게 선수들을 조달하여 성적 올리기에 급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안영익, 2002). 입상분포가 타지에서 영입한 대학부 및 일반부에 몰린 것으로 보아 제주태권도의 자력으로 우승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하겠다. 결국 제79회 전국체육대회 이후부터 제주출신 선수의 연계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99년 5월 제주에서 열린 제2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금메달 3개, 은

메달 3개, 동메달 8개 등 14개의 메달을 획득하면서 메달 수에서는 전국 1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혹독한 동·하계 소년체전 대비 합숙훈련의 결과에 개최지 이점까지 더해진 결과라 하겠다. 특히 이 대회에 입상한 유소년선수들이 그대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우수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연계육성의 중요성을 고취시킨 대회라 하겠다.

2002년 제83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금메달 4개, 은메달과 동메달 각 1개를 기록하였다. 같은 해 제3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금메달과 은메달 각 1개, 동메달 6개를 획득하였지만, 2003년 제84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동메달 2개만을 획득하며 전환기의 집행부교체를 실감하게 하였다.

2004년 제85회 전국체전에서 은메달 4개, 동메달 6개, 총 10개의 메달을 획득과 2005년 제34회 소년체육대회에서 금 3개, 은 2개, 동 3개, 총 8개의 메달 획득에 성공한다. 제주선수단이 경기력을 회복하면서 새로운 집행부가 자리를 잡으며 안정된 협회행정을 이어나갔다.

2011년 제40회 소년체육대회에서는 동메달 1개만을 획득하였다. 2012년 제41회 소년체육대회에서도 은 1, 동 1개로 총 2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저조한 성적으로 제주유소년태권도 선수단이 위기를 맞게 된다.

반면 2014년 제주에서 개최된 제95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금 6, 은 2, 동 7개로 총 15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총점 1,764점으로 태권도가 제주도에 도입된 이후 60년 만에 사상 첫 종합우승을 기록한다.

이는 개최지 점수를 넘어 메달집계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달성했는데 최근 소년체육대회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상반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결국 태권도 생활체육의 침체와 초등학교 태권도부의 부재가 맞물린 결과로 이때부터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연계육성의 첫 단계인 초등학교 태권도 팀 창단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제주태권도선수단은 열악한 자본과 인프라 그리고 얇

은 선수층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극복하고 1982년 장승화를 시작으로 진정 우, 박경숙, 고대휴, 박혜미, 장세욱 등의 수많은 국가대표를 배출해내며 세계 무대로 진출하였다. 그리고 역대 전국체육대회에서 첫 출전을 제외하고 매해 메달획득에 성공했고 제57회와 제79회 대회에서 두 번의 종합 준우승과 제95회 대회에서 한 번의 우승을 기록하며 그 경기력을 증명하였다.

한때 집행부의 권력다툼으로 2003~2005년까지 국가대표를 배출하지 못하였고 2003년 제8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동메달 2개만을 획득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으며 침체의 길을 걷기도 하였다. 하지만 빠른 집행부의 교체로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된다. 그 결과 2004년 제8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총 10개의 메달 획득과 2005년 제34회 소년체육대회에서 총 8개의 메달획득에 이어 2007년 박혜미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제주태권도가 앞으로 그 정통성을 이어가자 한다면 선수층 고갈과 태권도협회의 응집력 문제를 재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미래까지 조망한다면 태권도의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초등학교 태권도부 창단과 유소년 동계·하계 강화훈련의 부활이 시급하다. 그리고 태권도협회의 전문화 및 체계화를 통한 내실강화와 응집력향상이 제고된다 하겠다.

4. 제주태권도 주요선수단의 창단과 변천과정

제주태권도는 1954년 보급된 이후 1962년 9월 각관 통합과 1963년 제주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로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제44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등 경기화의 기반을 다져나갔다. 1966년 5월에 열린 제1회 도민종합체육대회에서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고 같은 해 12월 도지사기 전도태권도대회가 창설되는 등 제주태권도가 스포츠 경기로의 전환을 맞게 되면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선수단이 창단되기에 이르렀다.

다음에 있는 제주태권도 주요선수단에 관한 내용은 각종 신문자료와 각 선수단의 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 등을 통하여 생산된 자료임을 밝혀둔다.

1) 중등부

제주도 중학교 태권도부는 주로 2000년대를 전후로 창단되었다. 창단배경에는 2003년 제32회 소년체육대회제주유치를 대비해서 제주사범대학교 태권도선수 출신 교사들에 의해 창단되어졌다.

다음에 있는 제주도내 중학교 태권도부는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오현중, 한림중, 남주중 그리고 아라중학교까지 총 4개의 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체육관단위에서 운영되어지는 몇몇 중학교 태권도부는 제외함을 밝혀둔다.

(1) 오현중학교

오현중학교 태권도부는 1999년 창단되었다.

오현중학교는 강권식 선생에 의해 체육관 위주로 운영되어 오다 1999년에 윤희섭 코치가 정식 부임되며 창단되었다. 초창기에 3명으로 시작되었지만 체육관 선수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점차 팀다운 면모를 다져나갔다. 창단 3년 만인 2002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임창현 선수가 폐더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두각을 나타내었다. 그 기세를 몰아 이듬해인 2003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이성민 선수가 L헤비급에서 첫 금메달을 안겼다.

2009년 전국중고연맹장기대회에서 한승원 선수의 금메달과 김정재 선수의 은메달, 김태휘 선수의 동메달을 묶어 금1, 은1, 동1개를 획득, 중등부 종합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올리며 전성기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오현중학교는 제주시 지역 유소년 선수들의 육성과 보급에 큰 역할을 하였다. 현재도 큰 굴곡 없이 김형준 코치의 지도아래 매년 소년체육대회 메달리스트 배출을 목표로 유망주들을 양성하고 있다.

(2) 한림중학교

한림중학교 태권도부는 2010년 5월 창단되었다.

체육관을 운영하는 장현 감독은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친 제자들을 타 지역 중학교에 입학시켰으나 제자들이 적응을 하지 못하고 탈선을 하거나 운동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잦았다. 그리 넉넉지 않은 형편의 학부모들도 타 지역으로 자녀들을 보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한림중학교 출신의 장현 감독이 은사인 양석후 교장을 찾아가 태권도부 창단을 설득하게 되면서 창단하게 되었다.

창단 초반에 김천권 코치가 부임 했지만 학교의 지원은 전무 하였다. 도복은 학부모가 다니는 회사에서 지원을 받았고 마땅한 훈련장소가 없어 한림종합운동장 사무실 또는 금릉수련원 등 열악한 훈련환경에서 다소 어렵게 시작하였다. 한림중학교 태권도부가 성적을 조금씩 내면서부터 학교의 지원을 받게 된다. 2012년에는 태권도훈련장이 학교에 마련되면서 창단 2년 만에 학교에서 정식으로 훈련하게 되었다.

한림중학교는 창단 다음해인 2011년 제주평화기태권도대회에서 헤비급 강규준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하며 전국무대에 첫발을 내디뎠다. 같은 해 도내에서도 명문 아라중학교의 패권을 창단 1년 만에 가져오며 경쟁 구도를 만들게 된다. 경쟁을 통한 급속한 경기력의 성장을 바탕으로 2013년 제42회 소년체육대

회에서 윤희신 선수와 이상민 선수가 각각 금메달을 고경현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한다. 이로써 사실상 남자 중등부로는 종합우승의 결과와 다름이 없는 쾌거를 이룩하기도 하였다.

한림중학교는 훈련여건에서부터 선수들의 경기력까지 급성장한 신생팀으로써 초등부와 고등부 창단을 통한 연계육성을 목표로 제주태권도 유소년선수육성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3) 남주중학교

남주중학교 태권도부는 1982년 황윤희교장선생과 당시 선수출신으로 체육교사로 재직 중이던 김창환 선생의 노력으로 창단되었다.

1970년대부터 도장단위 출전으로 소년체육대회에서 메달획득의 기록이 있지만 정식 창단 이후 첫 메달은 1984년 제13회 소년체육대회에서 강동균 선수가 플라이급에서 은메달 획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85년 종별선수권대회에서 김운중 선수가 플라이급에서 창단 첫 금메달을 하였고 1986년 제15회 소년체육대회에서 강승수 선수가 헤비급에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80년대부터 90년대 후반까지 서귀포 지역의 유소년 태권도선수 육성과 경기력 향상에 대들보 역할을 하였다.

역대 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5개, 동메달 10개, 총 20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명문으로 거듭난다. 하지만 가파른 성장 곡선을 이어오던 남주중학교 태권도부는 2001년 제30회 소년체육대회에서 고경철 선수의 은메달을 끝으로 10여 년간 침체기를 맞고 있다.

남주중학교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초창기 태권도 선수 육성을 통한 경기력 향상으로 서귀포 지역의 태권도 보급 및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최근 졸업생 박양배 코치의 부임으로 오랜 침체기를 접고 명문 남주중학교의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4) 아라중학교

아라중학교 태권도부는 2003년 당시 우수선수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제주북 초등학교 선수들을 입학시키면서 태동되었다.

창단 전에도 간헐적으로 선수가 있었기에 창단 첫해부터 도내대회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대회에서도 메달획득에 성공하며 이름을 알렸다. 2003년 5·18민주항쟁기념 전국태권도대회에서 이상희 선수가 첫 전국대회 메달인 은메달 획득을 시작으로 각종 전국대회를 휩쓸며 창단 3년 만인 2006년도에 열린 3·15의거기념 전국태권도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다. 이는 도내 중학교 태권도팀 최초로 차지한 우승이기에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아라중학교 태권도부는 10년간 역대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금 4개, 은 5개, 동 8개로 총 17개의 메달 획득에 성공하며 명문으로써 자리매김 하였다.

아라중 태권도부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국 정상의 팀으로 발돋움한 것은 태권도 선수출신 김동훈, 오선홍, 최원국 교사와 송기용 지도자의 헌신적인 열성이 빚어낸 결과라 하겠다.

하지만 최근 지도자의 교체와 잇따른 중학교 태권도부의 창단으로 도내 우수선수가 분산되는 악재 속에 경기력 저하로 명문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라중학교 태권도부는 건강한 태권도인 육성이라는 부훈 아래 김영철 코치를 필두로 전국대회 종합우승에 재도전하고 있다.

2) 고등부

제주도 고등학교 태권도부 육성은 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제주시지역은 오현고등학교에서 남녕고등학교와 영주고등학교로 이어졌고 서귀포지역은 남주고등학교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여자고등학교 태권도부 육성은 초창기 제주여자고등학교와 삼성여자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다 현재는 영주고등학교와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에 있는 고등학교 태권도부는 현존해 있는 남녕고, 영주고, 남주고 그리고 중앙여자고등학교까지 총 4개의 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해체되어 운영되지 않는 몇몇 고등학교 태권도부는 제외함을 밝혀둔다.

(1) 남녕고등학교

남녕고등학교 태권도부는 1995년 3월에 체육학급의 개설로 창단되었다.

체육학급 개설 배경에는 1990년대 초반 학교체육이 근간을 이루는 학교에서 배출되는 우수선수들이 각종대회에서 경기력 저하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1998년도 제79회 전국체전 제주유치와 2000년대를 향한 제주체육의 새로운 진로모색이라는 학교 체육진흥계획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다. 여건상 체육고등학교가 설립되기에는 예산이 부족했기에 제주도의 실정을 감안하여 비교적 여건이 좋은 고등학교에 한 학급 정도의 체육학과를 신설하는 안건이 제시되면서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에 남녕고등학교가 설립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 학교에 3년 동안 연차적으로 약 12억 원이 지원되면서 합숙시설과 훈련 시설을 갖춘 체육학급의 개설로 태권도부가 창단된다.

학비전액면제와 합숙시설 및 훈련장을 갖춘 비교적 좋은 여건의 남녕고등학교에 중학교 우수선수들이 대거 입학하면서 도내 고등학교 태권도부의 판도가 달라졌다.

남녕고등학교 태권도부는 김태형 감독과 강승수 코치를 필두로 창단 1년 만에 춘천에서 열린 제7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고경민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하며 전국무대에 두각을 나타내었다. 창단 2년 만에 김동언 선수가 제7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이후 전국체육대회에서만 총 18개의 메달 획득과 다수의 국가대표를 배출시키며 창단과 동시에 전성기를 맞게 된다.

하지만 최근 연이은 지도자들의 교체와 전통성 결핍으로 우수선수 선발에 실패한다. 그리고 도내 선수수요의 급격한 감소와 제주도 유소년 태권도선수들의 경기력이 하향평준화 되는 악재 속에 침체기를 맞고 있다.

주요선수로는 2002년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김동연 선수와 2001년 태권도월드컵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양창일 선수, 2010년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각각 획득한 함규환·장세욱 선수, 같은 해 태권도월드컵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송문철 선수 그리고 2007년 세계청소년태권도대회와 2009년 아시아청소년태권도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윤석 선수가 있다. 또한 최근 국가대표를 배출하며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는 나사렛대학교 한승용 감독도 이 학교 출신이다.

남녕고등학교는 체육기능 우수생의 조기 발굴 및 지도육성, 전문지도에 의한 우수 체육인 양성 및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개설된 체육학급의 태권도부로서 앞으로도 제주태권도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 영주고등학교(제주공고)

제주영주고등학교는 강영민 이사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태권도 선수출신 한용식 교사의 부임으로 1995년 개교와 함께 태권도부가 창단되었다.

전교생 유단자 배출이라는 교육방침으로 2008년까지 수많은 유단자를 배출하며 제주시 지역의 태권도 보급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비정규시간에 수련을 강행하면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중단 되었다.

창단 초반 제주영주고등학교는 코치의 부재와 제주공업고등학교라는 실업계로 인식되면서 선수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지만 1998년 제주에서 개최된 제79회 전국체전에서 미들급의 이태경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하며 첫 메달을 신고하였다. 2001년 한찬석 선수가 제1회 아시아청소년태권도대회에서 금메달 획득에 이어 2002년 제83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하며 명맥을 이어갔다.

2005년에는 실내체육관 완공으로 훈련장소가 확보 되었고 졸업생 한찬석 코치의 부임으로 체계적인 훈련이 도입되는 등 창단 10년 만에 팀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제주도내 남녕고등학교와 남주고등학교의 경쟁에 밀리며 위기

를 맞게 되지만 2009년부터 여자부를 창단하면서 위기를 극복한다. 유소년 국가대표 출신 이나래 선수가 2011년 대통령기태권도대회에서 창단 이후 첫 금메달 획득에 이어 2012년에는 채경진 선수가 아시아청소년태권도대회에 국가대표로 선발되며 침체되었던 제주영주고등학교의 미래를 밝혔다. 2013년에는 10여년의 남녕고등학교 독주체제를 뒤로하고 전도태권도대회에서 우승하는 과란을 일으켰다.

제주영주고등학교는 6억7천의 예산으로 태권도전용훈련장 건립과 함께 태권도부에 애정 어린 지원을 아끼지 않는 고순국 교장의 기대로 태권도부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3) 남주고등학교

남주고등학교 태권도부는 1975년 김창환 교사가 부임하면서 출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창단 당시 남주고등학교에는 서귀포지역 도장에서 태권도에 입문하여 중학교 때부터 제주대표를 하고 있던 선수들이 재학 중이었다. 따라서 별 어려움 없이 태권도부를 창단할 수 있었고 1977년부터는 학교특색사업으로 전교생이 태권도 수련을 실시하게 된다. 이는 태권도 유단자를 15,000여명이나 배출하며 서귀포지역의 태권도보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고 일반학생들 중에서도 전국체육대회에서 입상하는 등의 우수한 선수들을 발굴하게 된다.

1980년대 초반 서귀포지역의 태권도 도장이 침체되는데 이에 맞물려 선수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며 선수수급이 어려워져 남주고등학교는 위기를 맞게 된다. 하지만 1981년 김창환 교사는 남주중학교로 전출되며, 그 뒤를 이어 안영익 교사가 태권도 선수들을 지도하게 되면서부터 침체되었던 태권도부를 활성화시키기 시작한다. 서귀포지역을 벗어나 신창중학교·제주중앙중학교·표선중학교 선수들까지 특기자로 입학시키며 위기를 극복한다.

학교에는 마땅한 연습장소가 없어서 처음에는 흙먼지가 날리는 운동장과 시

멘트 바닥인 교실 옥상에서 훈련을 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1984년 강성확 선수가 전국체육대회에서 7년 만에 동메달을 획득한다. 또한 1987년 3월에 국기원에서 개최된 춘계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강동균 선수가 첫 종별대회 메달인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같은 해 강운신 선수는 광주에서 개최된 제6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창단 이후 첫 금메달을 획득하며 남주고등학교 태권도부는 전성기를 맞게 된다.

1995년 3월 남녕고등학교 체육학급에 태권도부가 창단되면서 재정이 빈약한 남주고등학교는 선수 수급이 어려워 다시 위기를 맞게 된다. 이에 남주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 시절 선수가 아닌 유단자를 입학시켜 선수로 키우려 노력하였으나 훈련을 이기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하는 선수가 많아 겨우 명맥만 유지하였다.

남주고등학교 태권도부는 197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제주태권도의 한축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어왔다. 제주도 고등부태권도 선수육성은 제주시에서는 오현고등학교와 제주제일고등학교에서 남녕고등학교와 제주영주고등학교로 이어지고 있으나, 서귀포지역은 197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40년 동안 남주고등학교에서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다.

주요선수로는 제1회 주니어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한국대표로 라이트급에 출전하여 은메달을 획득한 김신규 선수와 제77회 전국체육대회 금메달 획득하며 경희대학교로 진학하여 재학 중 한국 대학태권도 대표팀으로 선발된 이광석 선수 그리고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3년 동안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제주태권도의 명예를 높였던 고대휴 선수가 있다.

남주고등학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도자와 동문들의 노력 그리고 서귀포시태권도협회의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으로 또다시 태권도 명문으로의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4)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제주중앙여고는 당시 제주도청 박선미 감독과 제주도태권도협회의 노력으로 2007년에 창단되었다.

제주태권도는 과거 제주시지역의 제주여고와 서귀포지역의 삼성여고 태권도 팀의 잇따른 해체로 우수한 유소년선수들이 타시도로 유출되는 등 여자부 태권도 육성에 위기를 맞게 된다. 이에 제주태권도는 우수한 유소년선수들을 중앙여고에 입학시켰고 제주도청 박선미 감독도 무보수로 중앙여고의 지도를 맡게 되면서 위기를 모면한다. 이후 2008년도에 상명여대 국가대표출신 제주도청 선수였던 강해은 코치가 정식으로 부임되면서 점차 태권도부로써의 구색을 갖추게 된다.

창단 1년 만에 대통령기태권도대회에서 김수현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며 전국무대에 두각을 나타냈고 전국체육대회에서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매해 메달획득에 성공 한다.

제주중앙여고는 전국체육대회에서만 동 2, 은 3, 금 1개로 총 6개의 메달을 제주도에 안기며 제주여자태권도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주요선수로는 2010년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김수현 선수와 2012년 제9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김신비 선수가 현재 경희대에서 유망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주중앙여고는 제주도에서 유일한 여자고등학교 팀으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제주여자태권도 육성과 경기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3) 제주대학교 태권도부

제주대학교는 1972년 체육학과 설치로 태권도부가 창단되었다.

당시 고교우수선수 들이 졸업과 동시에 인천체육전문학교로 입학하거나 소속을 잃어버리기 쉬웠으나 제주사범대학교(제주대학교)에 체육학과 설치를 통해 고교우수선수들의 도내 대학진학의 길이 열렸다. 이에 도내 고교선수들이

대학진학을 목표로 시합에 임했기 때문에 경기력 향상과 그 우수선수들이 대학을 마치고 다시 중등교사로 임용되면서 다시 우수한 선수들을 보급 및 양성하는 선순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76년 제5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 준우승을 하는데 제주대학교 태권도부 선수들이 일조하였다.

주요선수로는 전국체육대회 3연패에 빛나는 김동훈 선수와 세계챔피언 고대휴 선수, 제26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선욱 선수가 있다.

제주대학교 태권도부는 현재 강동범 코치의 지도아래 명실 공히 유일한 도내 대학교 태권도부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4) 제주특별자치도청(제주도청) 태권도팀

제주도 실업팀은 1998년 제주태권도협회 집행부의 노력에 의해 제주도청에 남자 태권도팀과 제주시청에 여자 태권도팀이 창단되었다.

초창기 제주도청 코치에는 제주도최초의 국가대표 헤비급 선수 출신인 장승화가 임명되었으며, 제주시청 여자부 코치에는 국가대표 여자부 트레이너를 지낸 강중식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제주에서 개최된 제79회 전국체육대회를 끝으로 은퇴하였다.

2000년 1월 제주시청 여자팀이 제주도청으로 통합되면서 사실상 남자팀과 여자팀 모두 제주도청 소속으로 시합에 참가하게 되었다.

창단 첫해인 1998년 제7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남자부 웰터급의 양원철 선수와 여자부 핀급의곽정순 선수가 각각 동메달 획득을 시작으로 2014년인 현재까지 52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제주선수단의 가장 많은 메달획득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대표선수로는 고대휴, 장정운, 이슬기, 정영한, 함규환, 송문철 선수를 배출해 내며 주요국제대회에서 선전하였다. 2014년 국방부장관기대회에서는 남

자부 4명의 선수가 출전해 금메달 3개, 여자부 5명의 선수가 출전해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각각 종합우승과 종합준우승 차지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같은 해 제95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총 7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제주도가 종합우승을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선수 구성은 제주도청의 9명의 선수 중 3명의 선수만 제주출신이며,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타 지역 출신들로 구성되어있어 연계육성의 인프라는 갖춰졌지만 사실상 제주출신선수가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제주도청 태권도팀은 현재 윤희섭 감독과 고대휴 코치의 지도아래 매해 전국체육대회에서 메달 획득과 국가대표 배출 및 올림픽메달리스트 배출을 목표로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팀이다.

제주도 초창기 선수단육성은 제주시지역의 오현고등학교와 서귀포시지역의 남주고등학교에서 고등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70년대 이후 연계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주사범대학교에 체육학과 설치를 시작으로 대학팀이 창단되기도 하였다.

제주시지역의 오현고등학교 태권도부가 해체됨에 따라 1995년에 남녕고등학교와 영주고등학교가 잇달아 창단되었다. 반면 서귀포지역의 남주고등학교는 제주시지역의 신생팀에 밀려 침체기를 맞기도 하였다. 2007년에는 여자고등부 태권도팀의 부재로 제주중앙여고에 태권도부가 창단되었다.

중학교 선수육성은 지역적 특성상 도장위주로 육성되어 오다 제32회 소년체육대회 제주유치를 대비해 2000년대 전후로 잇달아 창단되기 시작하였다. 창단배경에는 제주사범대학교를 졸업한 선수가 은퇴 후 중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창단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제주대학교 태권도팀은 제주선수단 육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아직까지 초등학교 선수 육성은 도장위주로 육성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이 연구는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태권도 경기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제주태권도의 문화정체성 확립 및 사(史)적 체계를 정립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태권도는 각 지역이 갖는 문화적 특수성과 융화되어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기도하며, 독자적인 문화가 형성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특정 지역인 제주를 중심으로 태권도 경기 변천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제주 태권도 경기의 변천과정에 관련된 문헌 및 신문기사 등의 문헌자료를 참고하였다. 연구의 질적 향상과 문헌의 사실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초창기 태권도를 수련하고 보급하였던 원로, 임원 그리고 선수들의 구술 자료를 모아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되도록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지역의 태권도 도입은 1954년 6월 문대식(文大植·본명 문봉준)에 의해 사사로 이루어졌다. 초창기 태권도 보급은 1955년 6월부터 창무관, 강덕원, 청도관, 오도관, 지도관 그리고 송무관 등의 주요 6개 관(館)에 의해 보급되어 졌다. 창무관이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제주태권도 보급에 많은 영향을 가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제주도태권도협회는 1957년 7월 17일 결성되었다. 1963년 2월 10일 제주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로의 승인을 시작으로 역대 3번의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으며, 재일동포의 성금으로 제주도태권도회관건립, 제15회 세

계선수권대회 유치, 제주평화기전국대회 유치 및 상시개최 그리고 ‘제주태권도 50년사’ 편찬 등의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셋째, 제주선수단은 1982년 첫 국가대표 장승화를 시작으로 다수의 국가대표선수를 배출하였다. 전국체육대회에서도 두 번의 종합 준우승과 한 번의 종합 우승을 기록하며 그 경기력을 입증 시켰다.

초창기 지도자들의 희생과 선배들의 귀감, 전국 창무관 수련회 및 심판강습회 제주유치,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한 강화훈련과 유망주 집중육성 그리고 제주대학교 태권도부와 제주도청 태권도팀 창단 등의 노력이 뒷받침된 결실이라 하겠다. 이는 결과적으로 도내 태권도 저변확대에 영향을 미쳤고 나아가 제주태권도가 제주체육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넷째, 제주선수단육성은 60년대 초반 시작되었다. 제주시지역은 오현고등학교에서 남녕고등학교와 영주고등학교로 이어졌고 서귀포지역은 남주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계육성의 시초로 1972년 제주사범대학교에 태권도부가 창단되었다. 중학교 태권도부는 2000년대를 전후로 제주에서 열린 제32회 소년체육대회대비를 목적으로 잇달아 창단하여 육성되고 있다.

다섯째, 제주태권도는 지역적 특수성을 극복하고 비약적 발전을 해왔다. 하지만 표상적인 실적에만 치중하는 경향으로 인해 제주도태권도협회의 내실 약화와 선수층 고갈 그리고 선수육성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제주도태권도협회는 경기체육과 생활체육 등의 각 분야를 세분화 및 체계화하여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잠재적 인재등용을 통한 조직의 전문화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또한 태권도선수 출신 중등교사들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어 대체 할 수 있는 지도자 수급이 제고된다.

마지막으로 태권도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초등학교 태권도부의 창단을 통한 선수자본의 확보 및 초·중·고·대학교 그리고 실업팀으로 이어지는 연계육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2. 제 언

이 연구는 제주지역에 태권도가 유입되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경기 태권도를 중심으로 고찰한 연구이다. 1950년대 초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약 60여년간의 변천과정을 문헌고찰과 면담을 통해 얻은 구술자료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제주 지역의 발전적인 미래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이 연구는 제주태권도의 경기체육 분야로 국한되어있기에 범위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생활체육 분야의 연구까지 좀 더 포괄적인 범위의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이 연구의 진행에 있어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었다. 빈약한 문헌자료를 보충하기 위해 태권도 원로, 임원 그리고 선수들의 직접 면담을 통한 구술자료를 연구자 중심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자료의 객관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이 연구에서 인용되어진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객관성 있는 검증이 요구된다.

셋째, 제주지역의 태권도팀에 대한 보다 세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현존해 있는 팀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하지만 현존해 있지 않지만 제주태권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 태권도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좀 더 세밀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제주선수단의 경기력에 대한 다양한 준거자료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주요국제경기대회와 전국체육대회에 국한되어 경기력을 평가했기 때문에 객관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종전국대회 입상실적을 포함하여 선수단의 경기력 평가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강원식 · 이정명(1999). 태권도 現代史. 서울: 보경문화사.
- 강원식 · 이정명(2002). 우리태권도의 역사. 서울: 상아기획.
- 권경미(2008). 한국 프로골프경기의 변천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 김기동(2012). 세계태권도한마당의 변천과정.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김보정(2010). 전남 · 광주지역 태권도 발전사.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나채만(2013). 광복이후 태권도시범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 류호평(1981). 한국 태권도 발전의 사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류호평(2001). 한국 태권도 심사제도 변천의 역사적 고찰.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신동선(2010). 한국 여성 태권도 경기의 변천과정.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송필철(2003). 태권도경기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 손천택 · 조준호(2009). 광복 후 인천레슬링 발전사 임배영, 정창선을 중심으로. 체육사학회지. 제14호, pp.117.
- 안영익(2002). 제주태권도 발전과정에 관한 사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탐라대학교 대학원.
- 윤종욱(2008). 경북 · 대구지역 태권도 경기 발전과정.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양현석(2004). 광복이후 요람기부터 성장기까지(1945~1979) 태권도 변천사. 체육사학회지. 제14호, pp.23-34.

- 양현석(2006). 광복 후 태권도 세계화의 변천과정. 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이무현(2010). 올림픽 종목으로서의 태권도 경기 변천과정.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안용규(1983). 태권도 경기의 각 발차기 사용빈도수와 득점력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안용규(2000). 태권도 역사·정신·철학. 서울 : 21세기 교육사.
- 안용규(2006). 태권도 탐구논리. 서울 : 대한미디어
- 양진방(1986). 해방 이후 한국 태권도의 발전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 경기태권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양진방(1997). 태권도 역사연구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을 위한 논의.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지.
- 이상현(1996). 광복 이후 태권도의 국제화 과정.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이군덕(2006). 태권도의 세계화 과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장권(2010). 한국 태권도 경기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대학원.
- 제주도체육회(2001). 제주도체육회 50년사. 제주도체육회.
- 제주도(1996). 제주도 통권 제100호. 제주도
- 정경원(2013). 광복이후 태권도 관의 생성과 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정정규(2008). 광복이후태권도시대적변천사에대한문헌적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최종삼(1997). 무도경기규정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최홍희(1972). 태권도 교서. 서울: 정연사.

최홍희(2000). 태권도와 나 1권. 서울 : 도서출판 다음.

최홍희(2000). 태권도와 나 2권. 서울 : 도서출판 다음.

최홍희(2003). 태권도와 나 3권. 서울 : 도서출판 다음.

황영갑(2007). 득점분석을 통한 태권도 경기의 발전방향.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홍성인(2006). 제주태권도 50년사. 제주도태권도협회.

<http://www.tkdnews.com/> 태권도신문

<http://www.jejusports.or.kr/> 제주도체육회

<http://www.jejunews.com/> 제주일보

ABSTRACT

A Transition of Jeju Taekwondo Competition

Song, Moon Chul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ocess of transition of Taekwondo competitions in Jeju Island, providing the base data by establishing the cultural identity of Jeju Taekwondo and the historical system.

Taekwondo creates something new, fusing the cultural distinctiveness as well as its own culture. This study looks at the transition of Taekwondo competition in Jeju Island, and uses references such as literature and articles on the progress of Taekwondo competition's transition.

In this study, interviews from the doyen, the executives and the players who trained and popularized early Taekwondo, are consulted to review the extant historical evidence of the literature. The contents of this thesis are outlined below.

The introduction of Taekwondo in Jeju Island took place under Dae-shik Moon in June, 1954. Since June, 1955, Taekwondo was popularized by the six major Gwan(館), Changmugwan, Gangdeogwon, Cheongdogwan,

Odogwan, Jidogwan, and Songmugwan. Changmugwan was the biggest among them and it had a considerable impact on the spread of Jeju Taekwondo.

Second, Jeju Taekwondo Association(濟州跆拳道協會) was founded in July 17th, 1957. The association won the Korean National Sports Festival three times since it gained approval fro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Sports Council. It also has made great achievements such as establishing the Jeju Taekwondo hall funded by Korean residents in Japan, inviting the 15th World Championship as well as the Jeju Pyeonghwa National Athletic Meeting. It also published The Jeju Taekwondo History of 50 Years.

Third, this Jeju sports team has turned out many excellent members of the national team since 1982, including Seung-hwa Jang, who is the first member of the national team. It results from the sacrifice from the early leaders, invitation the national Changmugwan retreat and the Referees' institute in Jeju, the intensified training for the Korean National Sports Festival, the intense recruitment and fostering future prospects, and from the founding of the Taekwondo team in Jeju National University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s a result, they affected the expansion of Taekwondo in Jeju. Because of this, Jeju Taekwondo has become the center of the Jeju Sports.

Fourth, the fostering of Jeju's Taekwondo team started from the early 1960's. There are Taekwondo clubs in Ohyun High School, Namnyeong

High School, and Yeongju High School in Jeju City and a Taekwondo club is in Namju High School in Seoguipo city. Linkages began to be fostered in 1972 from the Taekwondo Team in Jeju National University's College of Education. The middle school Taekwondo team was founded to prepare for the 32nd National Junior Sports Festival in the year 2000.

Fifth, Jeju Taekwondo has developed its own distinct characteristics that differ from other areas. However, the Jeju Taekwondo Association has a fragile internal stability due to its focus on competition results, as well as a decreasing number of athletes.

To resolve these problems, the Jeju Taekwondo Association needs to distinguish between competition and daily practice. It also needs to professionalize the organization by hiring professionals, as well as put new leaders in place to replace older teachers that are about to enter retirement.

Finally, it is time to revitalize Taekwondo sports and systemize future recruitment by founding Taekwondo clubs in elementary schools. Thereafter, athletes may be fostered throughout schools and share a link between professional teams.